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2월 15일)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월 19일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원장 진우 스님(사진 왼쪽)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사진 오른쪽)이 배석했다. 사진제공= 조계종 홍보국

원행 스님 "한국불교 발전 주춧돌 놓겠다"

1월 19일 신년회견서 종무 기조 · 핵심 과제 등 발표

코로나19 예방 위한 비대면 방식
백만원력결집불사 종단역량 결집
기후위기 · 남북교류 등 사회현안
승가공동체 · 신행확산도 주 과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종단 안정을 토대로 한국불교 발전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백만원력결집불사에 종단적 역량을 결집하고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에 매진하는 한편, 차별없는 세상과 남북화해, 기후위기 극복 등 대사회적 현안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직면한 종단적 ·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중점 종책과제 및 종무행정 기조를 밝혔다.

이날 원행 스님은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제하의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었다"고 지난해를 축약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전국사찰의 법회 중단과 산문폐쇄, 연등회의 전격적인 취소 등 불교계 모든 일상이 멈추면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한편으로, 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받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한 평가로 보인다.

신축년 새해 주요종책 방향성으로는 종단적 발전을 토대로 한 한국불교 견인을 꼽았으며, 동시에 사회와 함께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올해는 백만원력결집불사 및 종단 주요 불사의 가시적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대웅전과 보건소 건립불사(20201년 준공) △세종시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및 광제사 건립불사(올 9월 상량식) △불교 요양원 건립불사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설계(연내)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불사(11월 착공식) △계룡대 호국 흥제사 건립불사(2월 착공)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예경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 진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등재 후 올해 처음 열릴 연등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남북불교교류, 기후위기 극복, 차별금지법 제정 등 대사회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 의지, 그리고 대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승가공동체 육성의지도 함께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남북불교 교류협력 또한 멈춰버린 시계 앞에 진일보하지 못한 재 팽팽한 긴장감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며 "어려운 경색국면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조선불교도연맹과 긴밀한 협의로 방역물품 지원 등 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종단 계획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발언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원행 스님은 "올해는 불교환경의제 21 선포 15주년을 맞는 해"라며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감염병의 대 확산은 인간과 우주만물이 하나라는 가르침을 외면한 채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과 생명을 경시해 왔던 결과"라며 "전 지구적 위기의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자연이 주는 경고를 무시한 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 예방과 치료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또다른 감염병이 인류와 세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사회 역량 확대를 위해 역량있는 승가공동체 육성 의지도 피력했다. 스님은 "출가수행자는 사회현상에 능동적이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불교 사상과 시대정신을 담은 교육교재 개발을 통해 수행의 공덕이 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비우고 내려놓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모든 존재를 평등한 본성으로 인식하고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에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신년기자회견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은 종단 역사상 처음이다. 기자회견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등 영상 프로그램으로 공유, 온라인으로 접수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키워드로 본 신년기자회견 2면〉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 공론화 되나

법인이사회의 감사서 지적
건학이념 강화위원회 설립
불교대학 문화재학과 신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캠퍼스 이전을 포함한 장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산하 기관 내 건학이념구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1월 19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33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서울캠퍼스 · 경주캠퍼스 · 의료원 등의 중간 감사 보고를 받았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캠퍼스 이전을 방안으로 제안했다는 점이다.

감사 원명 스님은 "현재 경주캠퍼스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의과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수업의 일부나 전체를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BMC)에서 관련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경주캠퍼스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학교의 경쟁력을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수요에 따른 학제 개편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지역과 상생하겠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캠퍼스 이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보고를 통해 건학이념 강화를 위해 법인 및 산하기관에 '건학이념구현위원회' 설치도 공론화했다.

원명 스님은 "임용까지는 신행생활을 평가하지만 임용 후 인사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의 건학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건학이념구현위원회를 법인 및 산하기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이사장 성우 스님은 "감사 보고가 사장되지 않도록 각급 기관 답변서를 작성해서 차기 이사회에 제출토록 하라"고 주문하며 내부기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법인 사무처에 상시적 감사 제도를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는 불교대학 내에 문화재학과를 신설키로 결의했다. 불교대학 문화재학과는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정원 15명으로 2022년부터 신입생을 받게 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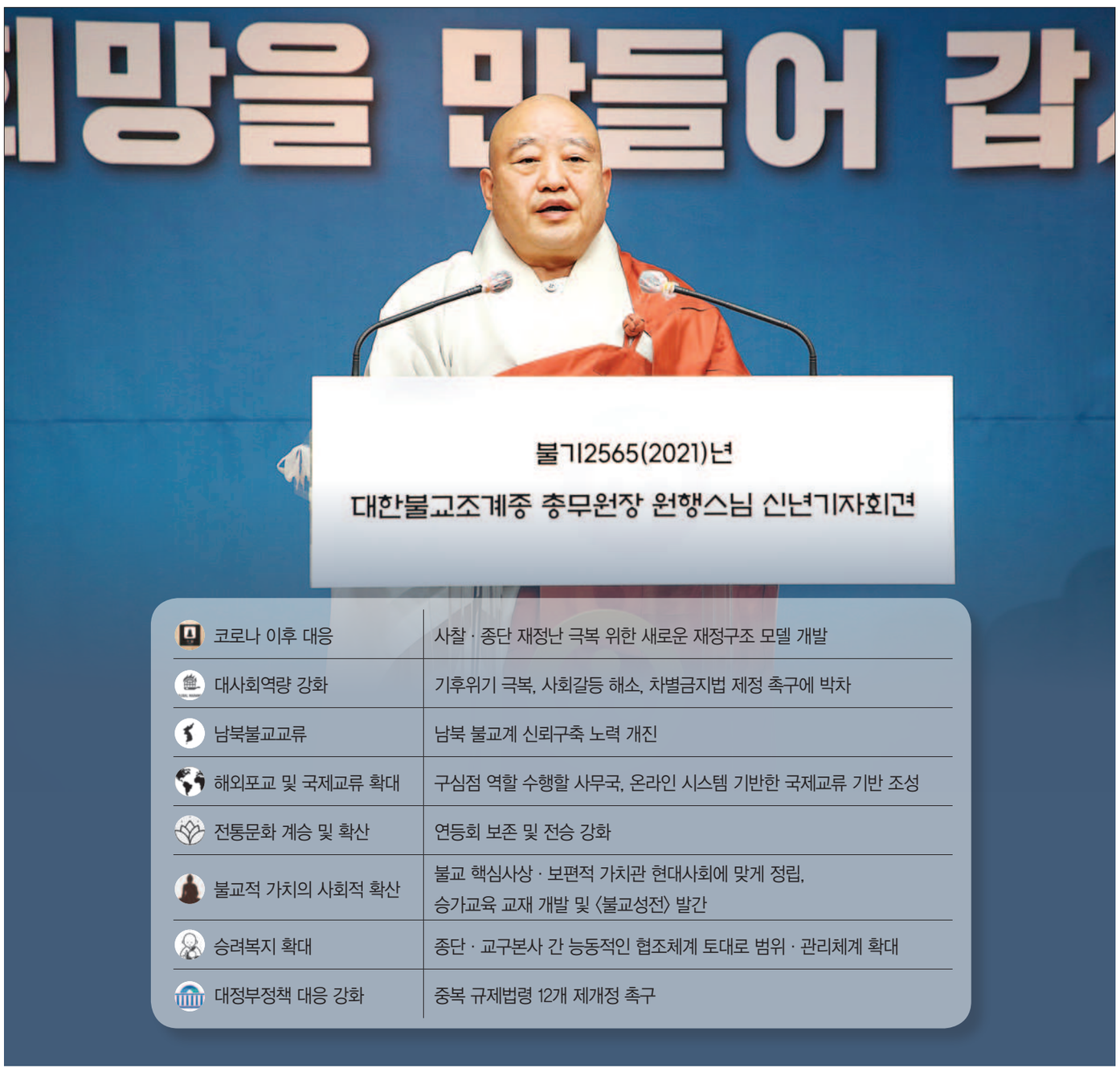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서울 종로구 율곡로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대사회활동 강화…불교 가치 확산 '주목'

키워드로 본 조계종 종무계획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7대 중점 종책과제로 △소통과 화합 △혁신 △승려복지 △교구중심 △문화창달 △교육과 포교 △사회를 꼽았다. 올해 중앙종무기관 들은 역시 이 같은 종책과제를 기반으로 각 부서별 주요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 한해 종무행정상 주요사업들을 키워드로 확인한다. 〈편집자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 이후 대응

지난해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는 불교계, 특히 사찰과 종단 재정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재무부장 탄하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사찰과의 고통 분담을 위해 분담금을 감액하는 등 조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집행의 최대한 긴축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주에 의존하는 사찰 재정 및 분담금에 의존하는 종단의 재정구조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구조개선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종교 본연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는 재정구조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부를 중심으로 불교경제유통망 구축을 통한 불교경제생태계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문화로의 급격한 변화를 종책에 반영한 대목도 눈에 띈다. 조계종은 특히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연수교육과 관련, 지속성과 전법역량 활성화 증대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사전강의 시청을 통해 사미 · 사미니 수계교육을 축소 시행하고 승려연수의 비대면 교육 등을 시도한다. 또 다양한 형식의 불교영상콘텐츠를 활용해 주요종책과 불교문화 홍보에 나서는 한편,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 유무형의 전통 불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대사회역량 강화

대사회적 역할의 대폭 확대는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특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수용해 실천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계종은 파리기후협약 시행 원년을 맞아 기후위기의 시급성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코로나 사태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와 현대인의 무한 소비에 있음을 천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단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해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세부지침 편성을 추진한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종교간 협의체를 통한 대국민 공동체 복원 메시지를 발표하고 종교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운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계종은 올해 매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하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 및 대정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남북불교교류

올해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의 새해서신 교류가 처음으로 단절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계종은 남북불교계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등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족유산보호 및 복원의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전쟁 중 소실된 사찰 복원을 위한 공동조사 및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공동법회, 부처님오신날 공동발원문 발표와 법회 등 지금은 단절된 연례공동행사를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현상황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은 한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후 사찰 · 종단 재정난
새로운 재정 구조 모델 고민
매월 차별금지법 제정기도회
해외 포교 사무국 운영 추진
기후 위기 대응 실천 강화도

해외포교 및 국제교류 확대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해외사찰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변화도 예고했다. 특히 2009년 이후 해외사찰 수가 57%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사찰 현황조사를 통해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찰을 파악하고 해외포교 정책 생산과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국 운영 준비 및 체계 구성에 나선다.

또 온라인 시스템에 토대를 둔 국제교류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영 · 중 · 일 외국인 대상 국제사이트를 9월 중 개편하고 해외불교 소식 교류를 위한 해외사찰 및 해외통신원 활용, 화상회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통문화 계승 및 확산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조계종은 이를 계기로 올해 연등회 보존 및 전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개진한다. 위기 극복과 사회적 기원을 담아 연등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통등 세대전승을 위한 연등공방 확대 지원, 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 계층별 등감습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내외국인을 위한 홍보 및 전수교육시설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교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조계종은 올해 불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현대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21세기 대전환의 시대에 따른 불교의 핵심사상과 보편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승가 뿐 아니라 일발불자 등 사부대중 공동체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교 개론서 발간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불교의 핵심사상과 보편적 가치관을 담은 승가교육 교재도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연초 종단본 〈불교성전〉 발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불교성전〉은 이 시대 불자와 국민에게 필요한 부처님 가르침을 담아 불교의 이해와 신행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행문화 확산을 위해 2월경 5대 수행법 지침서도 발간한다. 5대 수행법 길라잡이와 불자생활의례 보급을 확산해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공동체로서의 종교적 위상을 고취하겠다는 복안이다.

승려복지 확대

지난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효과적으로 안착한 만큼, 올해에는 한발 더 나아가 종단과 교구본사의 능동적인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승려복지의 확대 및 보다 밀착적인 지원에 나선다. 승려복지 전산프로그램 가동으로 체계화된 승려복지 지원 및 관리, 승려복지제도 안내 및 승보공양 후원 홍보의 비대면 시스템 도입 및 강화를 통해 승려복지 활성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단 요양병원 · 요양원 건립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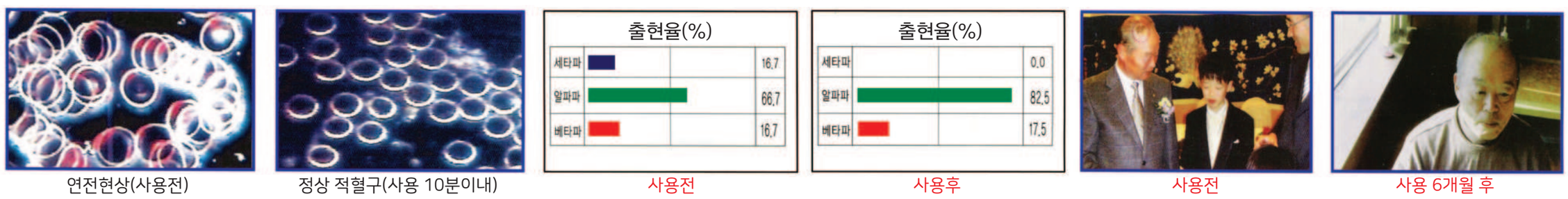
대정부정책 대응 강화

불교 관련 국가법령 제개정을 통해 사찰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불교 발전과 전통불교문화 보존전승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매장문화재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령을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 관련 부처와의 실무협의, 국회 입법발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 뇌파 측정촬영 / 검버섯 / 제거 현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사용전 사용후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신년감사 특별세일 1월 18일 ~ 2월 10일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교불련 차기회장 선출 놓고 내홍 심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가 차기 회장 선출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등기이사들은 "불법 사이버총회"를 주장하고 현 회장과 차기 회장을 제명시켰으며,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했다. 김성규 회장 측은 "적법 절차를 거친 총회"임을 강조하며 불교미래포럼 등 예정된 일정을 강행할 계획이다.

김용표, 연기영, 최용춘, 이용철 법인 등기이사들은 회장(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등기 이사인 김한란 성신여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히며, "현 회장인 김성규 영남대 명예교수와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송일호 동국대 교수를 회원에서 제명했다"고 1월 16일 공시했다.

등기이사들은 "공고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코로나 사태의 악화와 총회 준비의 미흡 등을 지적하며 김성규 회장 집행부에 총회 연기를 권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이버총회를 강행했다"면서 "이후 김성규 회장 집행부는 총회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4시 경 '비대면 Zoom으로 한다'는 변경사항을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했다. 이런 이유로 입후보자가 총회 참석을 권유한 특정 대학(동국대) 교수, 연구원 등이 100여 명이 참석해 송일호 회원이 65표를 얻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참석자 중 40여 명이 비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기이사들은 수차례 회의를 열어 김성규 회장에게 법정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고, 부득이 법인 징계위원회를 4차례 소집해 '회원 제명'의 중징계를 하게 됐다"고 저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등기 이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정상화 추진 연대회의(이하 정상화 연대회의)'도 구성됐다. 정상화 연대회의에는 교불련 소속 원로·중진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김한란(성신여대 명예교수, 교불련 회장직무대행), 송재운(동국대 명예교수), 이준(건국대 명예교수, 교불련 前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추진위원으로는 곽만연(동아대 명예교수), 우희종(서울대 교수), 홍승기(동국대 명예교수, 前 BBS불교방송사장) 등 17명이, 집행위원으로는 김용표(동국대 명예교수, 교불련 前 회장), 연기영(동국대 명예교수, 교불련 前 회장), 최용춘(상지영서대 명예교수, 교불련 前 회장) 등 15명이 참여했다. 연대회의 참여 서명자는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不法적 회장 선출, 무효"
등기이사 중심으로 반발
정상화연대회의 출범하고
정관 개정…2월 중 총회

정상화 연대회의는 1월 20일 서울 전법회관 4층 교불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수불자회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상화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사태의 발단은 법인 정관 등 기본적 규범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무를 집행한 김성규 前 회장에게 있다"면서 "김성규 측은 학회지 등재를 위해 설립한 '연합학회'의 2013년도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 정관'을 내세워 단체를 운영하고 이사회·총회를 소집해 본회를 파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화 연대회의는 김성규·송일호 측에 사이버 불법총회를 개최해 저지른 행위를 무효화하고 사퇴·참회할 것을 촉구했으며, 등기이사회에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회원명부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정관·제규정을 정비해 2월 중 총회를 열어 새 임원들을 선출할 것을 주문했다.

등기이사회와 정상화 연대회의의 주장에 김성규 회장 측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비대면 회의를 위해서는 회원 자신의 전화번호와 직함을 명시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비회원 참여는 현재 선출된 신임 회장을 반대하는 측이 내세운 주장"이라고 항변하며 "등기이사들이 신원불상·불법투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전원 확인했고 적절한 시기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라리 연임 제의가 있을 때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교불련 회원의 70~80% 가량이 퇴직 교수다. 교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직 교수가 활동해야 한다. 때마침 현직 교수가 교불련 회장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2년 간의 회계를 정리하고 있다"며 "회계 정리와는 별도로 재정도 교불련에서 선출한 감사가 감사를 시행했다. 총회 때 재무이사가 재무 내용을 발표했고,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공증을 위해 재무 내용을 공인회계사에 공증을 받아 차기 회장과 인수위원에게 인수인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기이사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 없는 사적 모임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관에 따라 교불련의 법인이사는 총회에서 인준 받은 48명의 이사 뿐"이라며 "등기이사는 총회의 인준도 받지 않고 편의상 등록한 서류상 이사이며, 그들이 별도로 이사회를 구성해 의결을 하거나 회원을 징계할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등기이사 모임은 5인이 모여 만든 사적 모임이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적법 절차로 선거 진행
등기이사 사적모임 불과"
김성규회장측 즉각 반발
미래 포럼 등 강행 예정

현재 김성규 회장 측은 1월 21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7차 불교미래포럼을 진행했으며, 이를 마지막으로 현 집행부 공식업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월 말경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송일호 교수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져 교불련의 내홍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 "부처님 가피 덕에 재임"

1월 19일 총무원장 스님 예방

대한체육회장 재임에 성공한 이기흥 전 중앙신도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부처님 가피 덕으로 생각한다"며 남다른 감사를 전했다.〈사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당선 소감과 함께, 前 중앙신도회장으로서 불교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원행 스님은 "대한체육회장에 재차 당선된 것은 불교계의 큰 경사"라며 "그 원력으로 우리나라 체육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큰일 하셨다"고 덕담을 전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서 스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이라며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마음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송지희 기자**

10교구 은해사 주지후보에 덕관 스님

1월 15일 교구 산중총회서
성담 스님과 4표차로 당선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 주지후보에 덕관 스님이 선출됐다.

은해사는 1월 15일 경내 육화원에서 차기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어 덕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산중총회는 전체 선거인단 119명 중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덕관 스님은 55표를 확보해, 51표를 받은 성담 스님을 제치고 주지후보로 결정됐다. 무효표 1표. 덕관 스님은 당선증을 수여받고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화합하는 가운데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은해사 주지후보 덕관 스님(사진 오른쪽).

덕관 스님은 금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청하 스님을 계사로 1992년 사미계, 199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국장과 감사국장 등을 지냈으며 충주 미륵세계사 주지, 강화 보문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불굴사 주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4기 사회노동위 출범…위원장 지몽 스님

원행 스님, 승가·재가 27명 위촉
혜도·여등 스님 등 신규위원 5명

사회 곳곳의 소외되고 불평등한 상황에 놓인 이들과 함께해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새 위원들을 선임하고 4기 위원회로 출범했다. 4기 사회노동위원장은 부위원장 지몽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4기 사회노동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임위원장 지몽 스님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4기 사회노동위원회는 승가위원 21명과 재가위원 6명,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사회부장 성공 스님은 당연직 위원이며, 혜도 스님(실상사)과 여등 스님(불영사), 조희주(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최종진(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소성욱(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씨 등 5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제4기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3기 사회노동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지몽 스님이 선임됐다.

원행 스님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사회가 복잡다난해 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며 "종단 대내외적으로 많은 역할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화합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어둡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보듬어 안는 것은 종교가 해야할 책무"라며 "종단의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를 전했다.

신임위원장 지몽 스님은 "코로나19 재난시기에 차별과 혐오와 부당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하신 분, 장애를 가진 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분, 여성과 성소수자, 인권사각지대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참혹하다"며 "사회노동위원회는 그 분들에게 가장 낮은 오체투지의 자세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기도와 108배, 오체투지로써 고통을 함께하고 위로하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황희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

청와대, 20일 부처 인사 단행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0일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서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된 황희 의원은 김대중 前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시절 비서로 일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후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양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어 국제선센터 10주년 법회에 참석하는 등 불교계와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언택트 시대, 사찰 기부도 '키오스크'로

조계사, 전국 1호 '키오스크 보시함' 개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주지 지현)에 두어 번의 터치만으로 단 5초 만에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키오스크 보시함'이 개설됐다. 키오스크(Kiosk)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결제방식이다.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도와 불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가운데, 기부방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 조계사는 최근 조계사교육문화센터 1층에 비대면 보시가 가능한 '키오스크 보시함'을 설치하고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종교활동 지원에 나섰다. 설치업체인 KG이니시스에 따르면 기부와 보시 등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키오스크를 활용한 사례는 조계사가 최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 문화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신도와 불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부와 보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호응이 크다.

키오스크 보시함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다. 보시나 기부를 원하는 불자가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원하는 항목의 보시금을 선택하면 끝이다. 항목은 승보공양, 성역화불사, 부처님오신날 시주금, 선원대중공양 등 4가지로 구성됐다. 각 항목을 선택하면 기부금의 사용처와 의미가 소개되며, 1천원부터 5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결제 후엔 즉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으로 법당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불전함 및 종무소 역할을 그대로 담았을 뿐 아니라, 현금 납부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도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효율성을 자랑한다.

때문에 조계사 측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키오스크 보시함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자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실현과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찰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키오스크 보시함'은 주지 지현 스님의 결단에서 탄생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불교계가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지난해 말 비대면 기부금 납입이 가능한 사이트를 도입한 것 역시 같은 일환이다.



조계사 교육문화센터 1층에 설치된 '키오스크 보시함'을 이용하는 스님과 신도들. 사진제공=조계사

'언택트 종교활동' 획기적 시도
조계사교육문화센터 1층 설치
신도 · 불자 편의증대 호응 커
위축된 기부 · 신행전환점 기대

불교 정서상 "사찰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하는 우려도 컸다. 그러나 스님은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지켜보며 뭔가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불교가 될 수 있겠다는 경각심이 있었다"며 "고민 끝에 하루 늦으면 나중에는 10년이 뒤쳐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시도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와 달리 불자들의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설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보시함이 설치된 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신도들 사이에서 "빠르고 간편해서 좋다"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시주하고 기부할 수 있다"는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사 측은 이 같은 반응을 즉각적으로 수렴해 향후 대웅전 앞에도 '키오스크 보시함'을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도와 불자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및 방문객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 향후 '키오스크 보시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지현 스님은 "불교계가 그동안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만큼, '키오스크 보시함'이 코로나 이후 위축된 종교활동 및 기부문화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소 과감한 시도이긴 하지만, 조계사의 사례와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다른 사찰에서도 '키오스크' 시스템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불교단체도 온라인 소통 증대

포교사단 등 원격 의결
(사)자비명상 이취임식도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새해를 맞은 불교 각 단체들의 비대면 소통이 늘고 있다.

(사)자비명상(이사장 마가) 총동문회는 1월 5일 서대문 현성정사에서 제5대 자비명상 총동문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5대 총동문회장으로 공주 청룡사 주지 관우 스님이 당선됐다.

관우 스님은 취임사에서 "소임을 충실히 하여 자비명상으로 행복의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시키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방창덕)도 1월 19일 서울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2021년 제1차 운영위 회의를 개최했다. 줌을 통해 열린 이번 화상 회의에서는 △2020년 결산안 승인 △포교사단 정관 개정안 심의 △포교사단 출범식/대의원 총회 실시 △팔재계 수계법회 및 정기연수 실시 △제26회 포교사 선발고시-1차합격자 합격자 연수 등이 의결됐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1월 12일 포교원에서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매뉴얼을 전국 대학 동아리에 배포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한 소통 증대 방침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자비실천 燈' 달기 캠페인 전개

전액을 코로나 장학금 사용
2월 26일까지… 상시 예정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코로나19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자비실천 캠페인을 전개한다.

동국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건학이념인 자비를 실천하고,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한 '자비나눔 · 소원성취 등 달기' 캠페인을 연다"고 1월 19일 밝혔다.

이날 동국대는 대학 본관 로비에서 윤성이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정각원장 묘주 스님, 강성우 학부 총학생회장, 선경화 학부 부총학생회장, 이재완 대학원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나눔 · 소원성취 등 달기'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동국대는 대학 본관을 비롯해 12곳의 학내 건물 로비에 총 24그루의 희망나무를 심고 동국인이라면 누구나 등 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은 1차적으로 2월 26일까지 40일 간 진행된다.

동참금은 희망나눔 1그루당 20만원, 등 1개당 1만원 이상이며, 모연금 전액은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는 2월 26일까지 '자비나눔 · 소원성취 등 달기 캠페인'을 대학 본관 및 건물 로비 12곳에 진행한다. 사진은 윤성이 총장과 정각원장 묘주 스님, 강성우 학부 총학생회장, 선경화 학부 부총학생회장, 이재완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캠페인 선포식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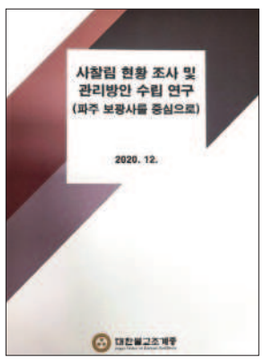
조계종, 사찰림 활용방안 모색 나섰다

환경위, 첫 연구보고서 발간
'파주 보광사' 시범지로 선정
현황 및 관리방안 수립 시도

사찰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주 보광사'를 중심으로 한 시범연구지만, 이를 통해 향후 사찰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의 운영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환경위원회(사회부장 성공 · 환경위원장 무관)는 최근 파주 보광사를 시범지로 선정, 현황과 관리방안을 연구해 '사찰림 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보광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오충현 교수)과의 협업을 토대로 작성됐다.

환경위원회는 "국립공원 내 사찰림은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있지만 그 외 지역의 사찰림은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산림복지 차원에서 대국민 편의를 제공할 경우 사찰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보고서는 우선 경기도 파주 보광사를 시범지로 선정하고 사찰림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분석해 운영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찰림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찰림의 기능'을 종교교육적, 생태문화적, 경제적, 관광휴양으로 구분했다.

조사대상인 보광사 사찰림의 경우, 해당 사찰림의 나무종류와 토지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경제림과 숲가꾸기 사업, 문화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조림사업이나 숲치유, 캠핑장, 수목장을 비롯해 서양 수도원의 산림활용방안을 벤치마킹한 6차 산업공간으로서의 사찰림 운영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사찰림의 산림면적 및 위치 · 수종 확인 방안과 산림계획 수립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등 과학적 툴을 접목하는 방안도 제시돼 주목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과거 사찰림의 도벌과 산불 등을 감시하던 '산감' 소임의 현대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점이다. 과거 산감의 역할을 확대해 병충해 예방과 불법 포획 채취 방지, 산림휴양객 관리, 명상숲 운영 등 사찰림의 경제문화적 활용을 총괄하는 새로운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회부는 "향후 별도 세미나 등을 통해 이번 연구결과물을 공론화하고 교육원 연수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라며 "시범연구가 마중물이 되어 현장에서 사찰림 활용에 필요한 자문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강화 보문사 백만원력불사 동참

1월 19일 5000만원 전달

강화 보문사(주지 선조)가 백만원력결집불사에 정성을 보탰다.

강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은 1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 5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에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 때문에 참배객이 줄어 어려움이 많을 텐데 백만원력결집불사에 동참해 줘 감사하다"며 말했다. 송지희 기자


강화 보문사가 백만원력결집불사에 동참했다. 사진제공=아름다운동행

문서번호 (2021-01-18)

공 고

(분환신청 / 승려증갱신)

삼보에 귀의 하옵고
대한불교 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바, 이런 역경을 딛고 대한불교 원효종에 전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신심을 내어 주신 스님들의 원력으로(2017카합10083대한불교원효종종정직무대행, 2019비합3003,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결정, 대구고등법원2020라388임시종정선임결정), 2021년 1월 12일자로 이종윤(원호)스님을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종단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종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들의 위촉, 임명 또는 임원, 의원 등 모든 직책은 법적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갱신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 측의 갱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으신 스님들께서도 아래 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기간 내에 갱신발급을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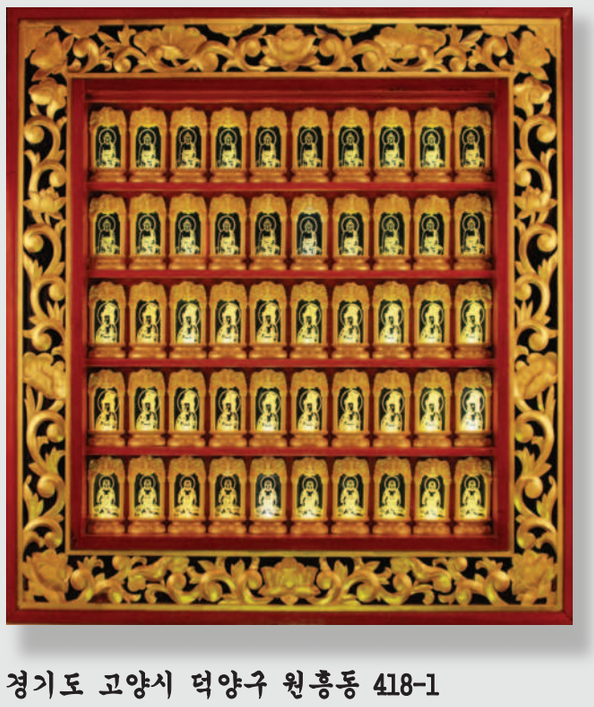
2021년 1월 27일

다 음

◉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 ·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 승려증
◉ **갱신기간** : **2021년 1월 ~ 4월** (※공고일 부터 3개월)
◉ **주 소** : 경북 경주시 배리2길 34-7
◉ **문 의 처** : 총무원 054)745-3400 / 팩스 054)745-3400 / H.P 010-9388-3883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상시교류 기반한 시스템 구축 선결과제

[진단]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년

1. 해외사찰 감소현황과 원인
2. 대안과 과제
3. 모범 해외사찰 사례
4.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해외사찰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2020년 해외사찰 편람에 따르면 제정 전인 2009년에 비해 그 수가 57% 수준으로 급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종법과 해외사찰이 운영되는 국가의 법체계 및 상황간의 괴리감, 종단과의 관계성 약화, 전담인력 및 관련 부서 부재로 인한 관리 미비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해외포교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대안과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상시교류 · 소통 시스템 구축

2020년은 조계종 해외포교 실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해로 평가된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다양한 변수들이 해외사찰과 종단 간의 관계를 재해석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이 주도한 해외사찰 편람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거주 스님들의 분한신고 서류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고충이 접수돼, 해외재적승의 신고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등 종무행정상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종단 차원에서 해외사찰에 마스크를 지원해 느슨했던 종단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 과정에서 종단 차원에서 해외사찰과의 상시교류 및 관련 업무 일원화 필요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사찰 일선에서 포교에 매진하는 스님들은 해외포교 관련 종무행정 일원화와 전담인력 지원을 중대한 개선과제로 꼽았다. 일선 사찰 현장의 목소리가 종단에 전달되는 토대, 즉 상시적 소통창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 초대회장 소임을 맡았던 불광선원 주지 휘광 스님은 "조계종 해외사찰이 종무행정의 범주에 속해 있음에도 정작 해외의 현실을 종단에 전달하는 등 종단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며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되고 특별교구가 존재하지만, 25개 교구본사나 군종특별교구와 같이 국내에 있는 교구와 비교해 보면 교구의 형태와 여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담 부서의 상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무행정의 지속성 확보도 과제로 제기됐다. 현재 해외사찰과 종단과의 교류는 시기별 현황보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조계종 해외포교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이 변경될 때 해외사찰에 대한 이해도나 사전 정보가 효과적으로 인계되지 않아 현지 사찰의 입장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축적 · 관리되면 국가별 사찰 운영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형성되는 것이 해외사찰 및 해외포교의 실질적인 종무행정의 시작이라는 제언이다.

해외포교 관련 업무 일원화

해외특별교구법에 근거한 해외특별교구가 존재하는 만큼, 전담부서 혹은 사무국이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외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계종의 해외사찰 관련 주무부서는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이지만, 사찰과 스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서는 총무원 총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해외사찰도 국내 사찰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리되고 있고 해외재적승의 경우에도 각기 상황에 따른 별도의 행정관리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밖에도 해외사찰의 포교와 관련한 부분은 국제전법단과 포교원이 일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사찰이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원이 연관부서가 되기도 한다. 이마저도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실무자의 관심 여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해외사찰에서 종단에 문의 및 요청사항이 생기더라도, 특정 부서나 담당자를 통해 이를 한 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조계종 관계자는 "업무일원화를 통해 해외사찰에 대한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가운데 의견수렴과 관리, 행정 지원, 인력 활용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해외사찰 스님들이 종단의 종무행정을 존중하기 위해 연락해 와도 일사분란하게 응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사무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찰등록 · 분한신고 등 법체계 현실화

조계종 종법에 따른 사찰등록과 관리, 스님들의 분한신고 등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사찰이 위치한 각국의 법체계와 종법의 괴리, 서류 확보의 어려움이 주된 요인이다.

특히 해외사찰등록절차의 변경 및 간소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미동부지회 종무이자 뉴욕 원각사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선명 스님은 "현지사찰과 국내사찰의 구성이나 운영성격 자체가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조계종에 사찰 등록을 하고 싶어도 종단이 요구하는 서류 구비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종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현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면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해외 현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등록을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동부지회가 2018년 현지에서 봉행한 연등회. 행사를 한번 개최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관계기관과의 수많은 업무조율 및 허가가 필요하다.

의견수렴 · 소통창구 마련시급
분산된 업무 전담 부서 일원화
현실과 괴리된 법 체계 변화도
인재 관리 인프라로 지속 관리

분한신고도 마찬가지다. 스님이 분한신고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국적이탈신고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지의 한국총영사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어렵게 총영사관을 방문하더라도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현지에서 아예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에 입국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대리 발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위임장을 작성하고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더욱이 시민권자인 스님의 경우 아예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사찰이 현지에서 종교법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종법과 격차가 크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포교하던 스님이 입적한 경우, 조계종법상 유사시 운영을 종단에 위임하게 되는데 현지법은 사찰법인 이사회에 위임되기 때문이다. 결국 종법상 사찰등록을 하더라도 현지에서 통용되지 않은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명 스님은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조계종 스님들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종단의 종무행정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있다"며 "바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종단의 종무행정은 해외사찰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해외 역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는 만큼, 화상회의 등을 정례화해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듣고 종무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인력 활용 토대 구축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스님, 또 한국에서 전법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스님 등을 국가별로 관리해, 해외포교 인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많았다. 지속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 인재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사찰에서 오랫동안 소임을 맡았던 스님도 정작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해외 경험이 있는 스님들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포교의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사찰에서 지도법사 스님을 요청하는 경우 적재적소에 연결해 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랜 세월 해외 유학승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해 온 휘광 스님은 "불광선원에서 오랫동안 소임을 맡고 공부한 스님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그 경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사찰 소임을 맡거나 선방에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며 "언어적 능력과 외국생활 및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이 스님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거주경험이 있는 스님들이 머무는 사찰을 국내 외국인포교 거점사찰로 지정해 한국불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연계하거나, 외국 스님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불교와 사찰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해외포교에 관심이 있거나 능력을 지닌 스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한국불교 세계화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해외사찰이 요구하는 스님과 국내에서 양성된 인재상의 차이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스님들에 대한 관리 역시 해외특별교구가 맡아 본국과의 불교교류 통로로 활용하거나 해당 국가의 해외사찰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끈다.

해외사찰 노하우 공유 및 포교 지원

해외포교의 첨병으로 꼽히는 해외사찰이지만, 대부분 현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사찰 운영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행 확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진정한 해외포교를 추구한다면 해외사찰에 맞는 새로운 포교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각국의 상황과 정서에 맞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찰의 사례를 체계화해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및 수행법 개발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 1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해외특별교구 사무체계 마련 등을 종무계획으로 발표했다. 이날 총무부는 "해외사찰현황조사를 토대로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찰을 파악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해외특별교구장 스님과 협력하는 가운데 해외포교 정책을 생산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국 등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부장 성공 스님도 "사회부 차원에서 전담인력과 사무국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해외사찰과 해외포교에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며 "종단 관련부서는 물론, 해외특별교구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 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세계 15만 불자 함께한 신뇨엔 寒수행 〈한〉

1월 20일~2월 4일 16일간 정진

세계 50개국 15만 해외신도 한수행으로 일년 정진 다짐
세계 국제포교 모델 제시해
코로나19 앞선 방역 선보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신뇨엔은 1월 20일 한수행 입재 법회를 전 세계에 동시 시작했다. 사진 왼쪽은 신뇨엔 입재법회 모습. 사진 오른쪽은 정진에 쓰인 통역 리시버.

전 세계 50개국 15만 해외신도들이 일제히 신뇨엔 한(寒)수행에 입재했다. 한수행은 신뇨엔 전통 수행으로 새해를 맞아 일 년 동안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겨울 기간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신심정화 수행이다. 이번 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세계 신도들이 빠짐없이 동참해 현대 비대면 시대와 세계 국제포교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다.

신뇨엔(원주 이토 신소)은 1월 20일 한수행 입재 법회를 전 세계에 걸쳐 시작했다. 한수행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신뇨엔 부산정사에는 10여 명의 신도들이 3층 법당에 모였다. 신뇨엔 소의경전인 〈열반경〉을 기준으로 조성된 법단에는 열반상이 모셔져 있었다. 신도들은 우리나라 삼귀의에 해당하는 삼귀의문 및 오계, 개경계 등 예불을 올렸고 참회문과 독경으로 마음을 모았다. 일본어로 진행하는 예불이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불자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나오는 예불문에 맞춰 합장하고 귀를 기울였다. 이어 체험담이 진행됐고 국제 원장 마츠나가 아츠시의 법문이 이어졌다.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포교와 실천을 통한 성장이 없다면 진정한 동참이 아니다"며 "마음을 굳건히 하고 철저한 결실을 보여주는 실천을 결심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회는 개인기도 및 발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됐다.

한수행은 1월 20일부터 16일간 진행되며 정화를 상징하는 개백과 실천을 강조하는 중원, 정진과 원력을 다짐하는 결원 총 3가지 기간으로 나뉜다. 개백 기간 동안 불자들은 법회에 참석하고 참회 및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중원 기간에는 지역 봉사 및 나눔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정진한다. 마지막으로 결원 기간 동안 마음을 새롭게 다지며 일 년 동안 지킬 원력과 정진을 결심한다. 한수행 후 1년 동안 신도들은 정진 수첩에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작성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한수행은 마음을 다잡고 오랜 기간 실천을 통해 성장을 꾀하는 수행 프로그램이다.

한수행은 1936년 신뇨엔 개조인 이토 신조가 새벽에 얼음물을 끼얹으며 30일 동안 정진한 수행이 계기가 됐다. 제1회는 다치카와시 임시 수행처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50개국에 전파됐다. 현재 한수행은 새벽정진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하루 4차례 혹은 5차례 등으로 법회를 나눠 진행해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개조의 발자취를 따라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고(Reflect), 새로운 깨달음과 활력을 얻고(Recharge), 목표를 바로잡아(Refocus) 성장을 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한수행에 동참하는 불자들은 삶의 변화 뿐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시간이 된다고 밝혔다.

이헌조(65 ·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불자는 "한수행에 동참한 것은 20년 정도 되었다"며 "정화 기간인 개백 중에는 지난해 묶은 마음의 찌꺼기를 해결하고 실천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며 "따뜻한 마음이 가득해진 자신을 보며 그 힘을 바탕으로 일 년 동안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자신을 본다"고 말했다.

이현하(37 · 부산 금정구 구서동)불자는 "11년 전에 신뇨엔을 알았고 정진을 한 것은 5년이 되었다. 한수행을 통해 안 좋았던 생각과 습관들이 바뀌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건강하게 이겨 낼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특히 신뇨엔은 이번 코로나 방역을 위한 철저한 예방 시스템과 국제 포교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다.

신뇨엔 부산정사에는 국제 통역가를 위한 공간이 따로 구비되어 있었고 동시통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역 리시버도 있어 실시간 법회에도 무리가 없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전 세계 신뇨엔 불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 정기 법회 뿐 아니라 한수행과 같은 프로그램 진행도 다함께 동참이 가능했다.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폐관된 나라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고민을 듣고 충고를 해주며 신행을 돕고 있다"며 "국제 포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언어였다. 문화차이를 확인하며 존중하고 전할 방법을 고심했다. 앞으로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세계에 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통도사, 양산 지역 성금 2000만원 전달

1월 15일 '양산시 저소득층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가 양산시 소외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1월 15일 양산 시청에서 '양산시 저소득층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성금은 총 2000만원이며 지역 소외이웃을 위해 회향될 예정이다. 성금은 통도사 대중스님들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식에는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 기획국장 지범 스님, 사회국장 성오 스님, 김일권 양산시장이 참석했다.

통도사는 "추운 겨울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낼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시길 기원한다"며 "아울러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양산시 공무원에게도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광주 소원정사 서구청에 팥죽 전달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는 1월 21일 광주 서구청에 코로나19로 수고하는 공직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단팥죽 500그릇을 전달했다. 자비신행회와 서구청불자회(회장 손회숙)가 후원한 이날 전달식에는 도계 스님,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 손회숙 회장, 서대석 구청이 참여한 가운데 전달됐다.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팥죽을 먹고 힘을 내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기사장

모이지 않아도 성도정진 열기 후끈

유튜브 및 줌 통해 특별 정진

홍법사 유튜브 참선 정진
포교사단 부산, 독송수행
원오사 줌으로 특별 정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성도재일을 맞아 각 사찰마다 정진의 열기가 뜨겁다. 코로나 19로 인해 법당 출입은 제한됐지만 온라인 비대면 정진 수행을 통해 안전과 수행을 동시에 잡았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월 18일~20일 성도재일 참선 정진을 대광명전에서 진행했다. 정진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법당에는 스님들이 모여 정진을 이어갔다. 홍법사는 유튜브 '홍법 TV'로 실시간 동참을 도왔으며 정진기간 동안 불자들은 각 가정에서 참선 정진으로 성도재일을 맞았다. 홍법사는 매년 성도재일을 맞아 철야정진을 이어왔다. 올해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유튜브 비대면 참선 정진으로 성도재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홍법사는 〈천수경〉을 시작으로 정진을 시작했고 참선에 대한 설명과 참선정진, 법문 순으로 진행했다.

홍법사는 "성도재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다. 불교에서 4대 명절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며 "성도재일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인천의 스승이 되신 날이 바로 성도재일이며 불교의 시작일이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은 성도재일을 맞아 1월 20일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을 진행했다. 부산지역단 포교사 676명 전원이 동참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독송하고 팀별로 보고해 완독을 알렸다.

정분남 단장은 "관세음보살보문품은 부처님의 자비경전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성도재일,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진행한 것은 깨달음에 자비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며 "자비에는 적이 없다해서 자비무적이라 했다. 포교사 모두가 자비보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독송했다"고 말했다.



성도재일을 맞아 비대면 수행정진 열기가 뜨거웠다. 사진은 홍법사 홍법TV 모습

한편,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동안거 기간 동안 〈법화경〉 독송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법화경〉 독송 정진 회향은 2월 7일이며 이에 앞서 범어사 대중스님들을 위한 대중공양을 진행한다. 대중공양비는 정진에 동참한 포교사들이 보시함에 십시일반 넣어 모금한 것이다.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는 1월 17일~20일 성도재일 특별정진을 줌(zoom)을 통해 진행했다. 동참자들은 정진 시간에 맞춰 접속해 수행 동참했으며 20일 새벽예불 시간에 회향했다. 특별 정진은 금강경 독송과 좌선, 발원문, 축복경, 반야심경, 사홍서원 순으로 마무리 됐다.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은 "성도재일은 수행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불교 최고의 명절이다"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도재일을 맞아 수행정진 함으로 깨달음을 향한 원력을 놓치지 말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동국대 경주병원 중환자실 1등급 획득

동국대 경주병원(병원장 이동석)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 환자의 입원진료분으로 전국 287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율 등 7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이동석 병원장은 "앞으로도 중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 가지 고질병 등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전수해드립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 총무원장 동진 합장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매월 광주불교 운영위 개최할 것”

광주불교聯, 회장 도성 스님 1월 18일 언택트로 취임식

유튜브 영상 통해 행사 대체
사찰에 배포 하고 활동 당부
빛고을관등회 활성화도 제시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가 이취임식을 대신해 배포한 도성 스님의 유튜브 취임영상.

광주불교를 이끌어갈 광주불교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영상으로 봉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1월 18일 “광주불교연합회장 이취임식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상으로 대신 진행한다”고 밝히고 10분가량의 유튜브 영상을 광주지역 사찰과 단체에 배포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당초 1월 16일 예정이었던 성도재일 연합법회와 이취임식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면서 영상촬영과 유튜브 배포라는 비대면 이취임식으로 진행했다.

도성 스님은 영상에서 현 코로나19사태에 대해 “모든 생명이 결국 인과의 원칙과 하나의 몸체와 같은 운명공동체라는 연기적 가치관을 통해 보아야 결국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 불교계는 이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고 화두삼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성 스님은 “광주불교계 또한 많은 어려움과 당면과제가 놓여있다. 저는 앞으로 2년간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소임을 통해 광주불교 사부대중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구체적 방법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 사부대중의 화합”이라고 단언했다. 스님은 “광주불교를 다함께 만들어갈 모든 스님들과 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광주에 사는 모든 사부대중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며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확대하겠다. 전체 회원이 참가하는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모두가 함께 광주불교연합회의 주인이 되는 회의를 운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빛고을관등회 또한 1300여년 이어온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역대 사부대중이 이어온 전통을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성 스님은 특히 구랍 연등회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 “빛고을관등회도 연등회 지방행사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어 문화재청 책자에도 기록되었다”며“앞으로 더욱 발전된 행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의 연합회장 소임을 내려놓은 동현 스님(신광사 주지)은 이임사 영상에서 “매월 1월에는 원래 성도재일 연합법회와 광주불교연합회 이취임식을 봉행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모임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것도 시대의 한 자화상인 듯 하다”며, “지난 2년간 제가 회장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각 사찰 대덕 큰스님과 기획단장스님,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빛고을관등회와 같은 큰 행사에 아낌없는 참여를 해 주신 신도님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한 도성 스님은 1974년 백양사에서 출가해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물외암, 보광정사, 광주 관음사, 영광 불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백양사 인사위원장, 광주 복암사 주지,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대표에 재직 중이다. 스님은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139호 전통불복장 보유자(단체)로 불교전통의식의 대가이다.

전주교도소 교정협, 수용자 사랑꿀떡 나눔

불교계와 원불교계 힘 모아 수용자에게 1400인분 전달


1월 19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진행된 불교와 원불교 사랑의 꿀떡 전달식.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진성)가 새해를 맞아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사랑의 꿀떡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불교와 원불교 교정협의회는 1월 19일 전주교도소(최병록 소장)에 사랑의 꿀떡 1400인분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을 비롯해 불교위원장 현진 스님(전주 천지사), 안현숙 원불교 위원장, 유영 신부, 오성택 목사 등 교정협의회원들과 최병록 소장을 비롯한 전주 교도소 관계자, 마이산 탑사 탑밴드 봉사단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꿀떡은 코로나로 수용자들이 힘든 수형 생활에 용기를 주고 다가오는 설을 생각하며 고향의 그리움을 담은 꿀떡을 맛 보여줌으로써 선한 마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위원장 현진 스님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교, 원불교가 합동으로 수용자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꿀떡을 준비했다. 수용자를 위해 정성껏 마련하고 전달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수용자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함께 나눈 꿀떡을 즐겁게 먹으니 또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현숙 원불교 위원장은 “종교간의 화합과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 모였다. 수용자들이 수형 생활에서 서로 도우며 상생하기를 바란다. 원불교인과 불교 신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만든 꿀떡이 수용자들에게 용기를 주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탑밴드 봉사단은 이날 전주소년원 150명분, 소년원 자립생활관 50명분, 엠마뉴엘복지관 50명분, 자애복지관 50명분의 꿀떡과 설명절 떡국용 떡쌀을 소년원 어머니회(김도은 위원장)에 전달했다.

이날 전주 천지사 주지 현진 스님은 광주교정창으로부터 수용자 사회복귀에 솔선수범하여 성심을 다해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최병록 전주교도소 소장은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종교반 원불교, 불교에서 종파를 초월하였다. 다종교 시대에서 나눔을 한곳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에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수용자들을 위한 복지를 우선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수용자들을 위한 나눔을 끝없이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부산聯, 승보공양상 시상

회장상 안병선 복지건강국장 · 시장상 내원청소년단 등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법회 회장상 및 시장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법회를 취소하고 찾아가는 승보공양으로 진행한 뒤 시상식을 별도로 마련해 부산 시민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힘쓰는 노고를 치하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제10회 성도재일기념 찾아가는 승보공양 시상식을 1월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은 진행됐으며 13일에는 부산시청에서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상을 시상했다. 수상은 안병선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이 받았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산 시민과 불자들을 대표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보살행을 실천한 노고에 감사함을 표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장상 시상식은 16일 혜원정사에서 개최됐다. 수상자는 단체부문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이며 개인부문은 백승완 부산보훈병원장이 수상했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 ‘제10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는 성도재일 당일인 1월 20일 BTN불교TV에서 특집방송으로 방영됐으며, 2월 12일 오후 7시 30분 설특집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인연 찾아가는 승보공양(가제)’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성주사, 성도재일 입재법회



창원 성주사가 성도재일을 맞아 특별정진 법회를 봉행했다. 성주사(주지 법안)는 1월 19일 ‘성도재일기도입재법회’를 설법전에서 봉행했다.<사진>

기도입재에는 주지 법안 스님을 비롯해 신도 3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기도 및 소참법문이 이어졌으며 참선과 108배, 성도재일 발원문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법안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도재일의 중요한 의미를 새기기 위해 적은 인원이라도 함께 정진을 하고자 봉행하게 됐다”며 “성도재일을 맞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참석한 대중의 지중한 마음이 부처님의 세계에 한발짝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정진으로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는 삶을 살아 갈 것이라 서원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지혜광명으로 영원히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정진으로 부처님을 따르고 실천할 것이다”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도록 가피를 내려 달라”고 기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국제불교聯, 미얀마에 방역물품 전달



국제불교연합(이사장 재원)은 1월 21일 서울 미얀마대사관에서 미얀마 야자죠 고아원 1600명과 양곤불교대학 스님 1100명에게 전달될 K방역세트를 기부했다.<사진> 총 5000만원 상당인 K방역세트에는 KF94 마스크 6만장, 덴탈 마스크 6만장과 손세정제, 체온계, 방역장갑 등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불교연합 이사장 재원 스님과 제주 선운정사 회주 현오 스님, 홍을선 국제불교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딴진 미얀마 대사 등 관계자들이 국제불교연합의 기부물품을 받았다.

재원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든 미얀마 사정을 듣고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 특히 양곤의 스님들이 수행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이번 방역물품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딴진 미얀마 대사는 “바간 복원 등에도 한국정부와 한국불교계가 힘을 모아줘 감사하다. 미얀마에 한국불자들의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Ⅱ·Ⅲ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Ⅰ·Ⅱ·Ⅲ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Ⅱ·Ⅲ**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Ⅰ·Ⅱ·Ⅲ**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2-1949-5544-0 (예금주 : 주식회사 연당)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대상 : 전국사찰 법당서 소리 체험 후 선택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부탄불교계, 印부다가야서 평화법회

부탄 특유 작법무도 선보여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세계의 평화를 비는 연례 기도회가 부탄 불교계에 의해 봉행됐다. 1월 13일 '로이터 통신'은 인도 부다가야에 소재한 툽땐쵤링 사원에서 봉행된 기원법회의 모습을 보도했다.

툽땐쵤링 사원은 부탄 왕실이 후원하여 건립된 사원으로, 성도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에 세워진 해외불교계 사찰 중 자국 승려가 상주하며 자체적인 강원을 운영하는 소수의 사원 중 한 곳이다. 툽땐쵤링 사원은 매년 초 3일간 전통적인 작법무와 함께 괘불을 공개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쩨추'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부탄불교에서 봉행하는 쩨추법회는 부다가야에서는 이미 연초의 특별한 법회로 자리잡아 세계각지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과 현지 불자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올해의 법회는 예년에 비하여 축소돼 봉행됐으며, 대중스님들만 모여 기도를 진행했다.



마당에서 작법무를 추고 있는 스님. 사진출처=툽땐쵤링 페이스북

법회 첫날 새벽 3시부터 시작된 법회는 먼저 부처님과 호법신들의 가피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됐다. 툽땐쵤링 측은 "이 기도는 일체중생의 건강과 자연의 조화롭지 못한 요소들을 진정시키길 기원하는 기도"라고 밝혔다. 또한 "건기라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겨울임에도 법회의 첫날인 오늘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 아마 법회가 원만히 회향될 것을 보이는 길조일 것"이라고 전했다. 새벽부터 이어진 기도는 이윽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작법무로 진행됐다. 사원의 마당에서 봉행된 작법무는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선한 공덕을 불러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쩨추법회는 삼일 간 새벽부터 기도가 이어지고, 낮에는 작법무가 봉행됐다.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 응한 툽땐쵤링의 사무장 소남 도르제 스님은 "작법무를 위해 호법신으로 분장한 스님들은 춤을 추는 동안 불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진다. 불보살들의 춤을 보여줌으로써 분쟁과 고난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작법무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우리들 자신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다른 세계들을 평화롭게 하겠는가. 우리들이 먼저 평화를 추구하고, 또 평화를 위해 타인을 돕는다면 모든 세계가 진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향일인 3일째 오전, 툽땐쵤링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작법무중 가장 규모가 큰 '구루짼걔' 춤을 중계했다. 구루짼걔는 티베트와 부탄에 불교를 전한 스승 파드마삼바바와 그의 여덟 화신의 춤으로, 이 춤을 보는 이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고, 춤이 봉행된 장소는 정토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대중이 사원에 모이지 못한 것을 배려한 것이다.

법회가 모두 끝나고 대중스님들은 마지막 회향을 위해 2층 높이의 자수괘불 두 점을 사원 외부에 걸어 대중에게 공개했다. 사원측은 "법회의 마지막날 공개되는 괘불을 멀리서만 보아도 훗날 성불하는 종자를 심는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두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며 기원했다.

인도, 불교 순례 관광열차 개발 추진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제 관광 재개 상황 대비

인도 정부가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기차 여행인 '불교 순례 관광열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전 세계 불교도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동남아시아의 여행 관련 매체 TTRW(TTR Weekly)는 1월 19일(현지시간) "인도 관광부처는 지난 주말 개최한 웨비나에서 주요 안건으로 인도의 불교 서킷을 순례하는 기차여행에 대해 논의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이 지나가고 국제 관광이 재개되면 기차 여행을 홍보하는 한편, 인도 불교 유산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했다.

이날 웨비나에선 기차여행의 목적지인 각각의 불교문화유산들에 대한 정보 제공 외에도 인근 숙박 정보, 기차여행과 관련한 최신 정보 등 여행 정보를 소개했다.

이번 안건을 제안한 시리 아룬 스리바스타바(Shri Arun Srivastava) 관광부 차장은 "인도의 불교 관광 유산은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불교도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인도에는 부처님의 삶과 관련된 여러 성지가 있다. 인도 불교는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전통과 관습의 중요한 근원이자 영감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TTR Weekly

안건 발표를 맡은 인도철도운송관광공사(IRCTC) 공동 총괄책임자인 아얏트 싱하(Achyut Singh) 박사는 "IRCTC의 불교 순례 관광열차는 석가모니 부처님 삶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며 "부처의 삶과 가르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장소들을 포함해 불교 역사상 가장 숭고한 장소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리 박사는 인도 국경을 넘어 네팔에 위치한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도 불교 순례 관광 열차 코스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룸비니에 위치한 고대 불교 사원인 마야데비 사원(Mayadevi temple) 등에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는 게 인도 관광당국의 설명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1300년 전 고대 목조탑 사부대중에 개방

日 나라市 야쿠시지 사원, 10년 복원 끝에 동삼층불탑 공개

일본 최초의 수도 나라(奈良)시에 위치한 불교 사원인 야쿠시지(Yakushi-ji)는 10년 만에 복원에 성공한 고대 동(東)삼층불탑을 대중에 공개한다.

1월 8일(현지시간)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 외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국보로서 1300년 전 조성된 해당 삼층불탑은 오는 3월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사부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부분 공개된다. 당초만 해도 지난해 5월 개방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으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사찰 측은 현지 매체들을 통해 "개방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불탑의 단상에 올라 탑의 중심부와 화려하게 장식된 천장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방기간 전까지는 철저한 출입 통제가 이뤄질 방침이다.

야쿠시지 사찰은 덴무 천황(631년~686년) 시절인 680년 그의 병환을 회복하기 위해 나라시에 세운 7대 사찰 중 하나로, 4세기 인도 무착 스님에 의해 시작된 일본 대승불교 종파인 유가행파 중 법상종의 본원 사찰이다.



야쿠시지 동삼층불탑 전경. 사진출처=재패니즈타임즈



동삼층불탑 상단의 청동 구조물. 사진출처=야쿠시지 사찰 홈페이지

이 사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대 나라의 역사적 기념물을 구성하는 8개 유적지에도 포함된다. 973년경 화재로 사찰 터 대부분이 소실되고 1528년 대웅전이 소실됐으나, 이후 사찰 전체가 완전히 복원됐다.

높이 33.6m의 삼층탑은 730년에 건립된 것으로, 1300년 전 사찰이 창건된 이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약 110년 만에 최초 모습을 되찾았다. 부디스트도어는 해당 탑을 "일본 최고의 탑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표현했다.

해당 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당시 최첨단 공법으로 제작된 6개 층의 꼭지장식이다. 어니스트 페놀로사(1853~1908) 도쿄제국대학 일본미술사학 교수는 교차하는 구조의 독특한 꼭지장식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학적 리듬과 탑의 건축적 균형미를 극찬하면서, 탑을 "결빙된(고체화된) 음악"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해진다.

또 탑 상단의 청동 장식물은 천상의 인물이 춤을 추고 피리를 부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탑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다.

한편 나라시는 710~794년 나라 시대에 천황들이 머물던 곳이다. 이후 일본의 수도는 교토에서 도쿄로 이전됐다. 나라시에는 593년 완공된 간고지(Gangō-ji), 일본 법상종의 대본산으로서 669년 설립된 고후쿠지(Kōfuku-ji), 738년 창건돼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인 대불전을 보유한 도다이지(Tōdai-ji), 율종의 총본산으로서 759년 창건된 도쇼다이지(Tōshōdai-ji) 등 역사적으로 진귀한 불교 사찰들이 즐비해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호우로 유실된 관음상, 반년 만에 환처

지역주민들 "매일 기도하겠다"

폭우로 유실되었던 관음상이 반년만에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난 1월 17일, 일본의 '쿠마모토 신문'은 기적적으로 돌아온 관음상의 이야기를 특별 보도했다.

돌아온 관세음보살상은 높이 40cm 가량의 목제 좌상으로 17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음상은 다른 불상과 함께 히토요시(人吉)시의 오가키(小柿)지구의 관음당에 모셔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강가에 있던 관음당이 호우로 불어난 물에 피해를 입으면서 봉안되어 있던 2구의 불상이 모두 유실됐다.

마을 회장인 마츠부네 노부오 씨는 "피해를 입기 전엔 마을자치회에서 당번을 정해 월 1회 관음당을 청소하고 백중과 같은 날엔 예불을 모시는 등 마을의 신행활동의 중요한 장소"라고 전했다. 노부오 씨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 이 정신이 없어 불상이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수색할 여력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현의 야마에무라(山江村) 역사민속자료관에서 수해로 흩어진 불상들을 모아 전시회가 열렸다. 해당 자료관 측은 소재지 불명의 불상들을 보관, 관리하고 있었다.



사진출처=쿠마모토 신문

노부오 씨와 마을 주민들이 신문을 통해 전시회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료관을 방문했다. 마을주민이 가지고 있던 관세음보살상의 사진과 전시된 50여 구의 불상들을 대조한 끝에 거의 온전한 상태의 관음상을 찾아낼 수 있었다.

지난 16일, 본래의 관음당에 다시금 안치하는 행사에서 불상을 이운한 오히라 카즈아키 자료관장은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있던 오가키 지구는 강가임에도 수해가 적었다. 보살님께서 스스로 강에 흘러가시는 것으로 지키신 것 아니겠는가"라며 관음상을 안치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께서 **동성애는 참회할 수 없는 중죄**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불설우바새5계상경)

불교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 불교계의 스님들과 신도들도 부처님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가르침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일부 종단은 동성애자들의 활동을 지원한 사례도 있음
- **현재 입법이 추진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성별정체성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여, 남성도 여성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여성으로 인정되어 여성화장실을 이용하고, 여성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 만약 스님이 동성애와 성적지향 행위를 지지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으로 더 이상 스님이 아닙니다.**
-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대상으로 입법이 되면 **인류의 윤리 / 도덕, 종교적 믿음, 사회와 가정이 파괴될 것입니다.**
-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님이 의학적으로 밝혔으며, **불치병인 에이즈는 동성애가 주 감염경로입니다.**
- 지자체와 교육청의 인권조례와 일부 학교의 학칙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에이즈 위험이 있다"라고 사실을 말해도 신고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이 법 하나 만으로도 국민의 자유가 심각히 억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지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심각히 억압하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어머니! 자녀가 동성애자들의 유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www.nabuco.org

상임대표 박희도, 공동회장 김홍래 전공군참모총장, 이건호 방생법회 회장, 송재운 동국대명예교수, 송춘희 백련장학회 회장, 신윤희 전육군헌병감, 이석복 전 연합사참모장, 정두규 전 해군제독, 이재순 전 군군간호학교 교장, 임선교 전WFB 한국본부 회장, 박준 전조계사 신도회부회장

문의 02-2265-0570
전화 010-8242-5264

우리은행 1005-401-401246
예금주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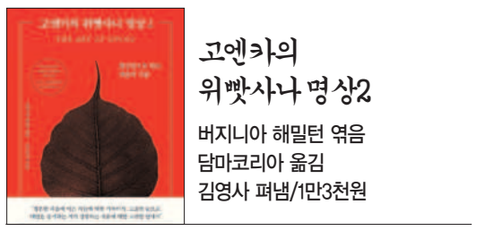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0~1/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코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3	굿바이 분노 : 보리심 완성을 위한 실천 수행법	원빈스님	이층버스
4	보리도차제의 마르티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뻰첸라마 롭상예	운주사
5	요가 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6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7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법	법륜스님	정토
8	조용헌의 영지 순례 : 기운과 풍광 인생 순례지를 알려주는 영지 23곳	조용헌	불광출판사
9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10	불자 생활 의례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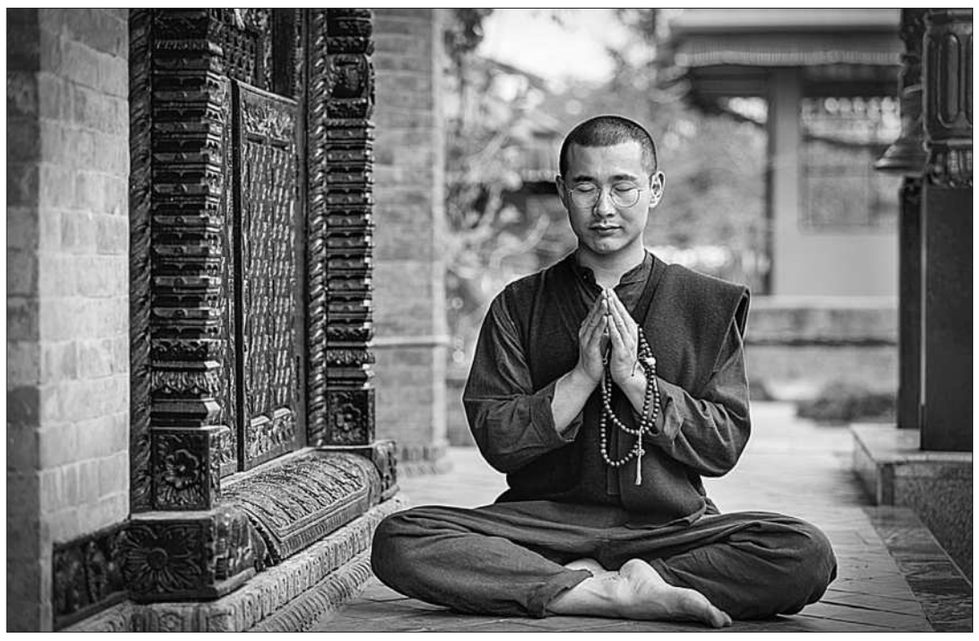
책세상

현대적 언어로 푼 위빳사나 명상 진수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2
버지니아 해밀턴 엮음
담마코리아 옮김
김영사 펴냄/1만3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법 한국 최초 정식 출간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 S. N. 고엔카가 가르치는 위빳사나 명상법의 간략한 내용을 알리고 붓다의 가르침과 그 핵심 명상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 위빳사나 명상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설명서가 아닌, 고엔카가 전파한 붓다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펴낸 책이다.

위빳사나 명상은 2500년 전 붓다가 고통의 원인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스스로 깨우쳐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 명상법이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원형 그대로 명맥이 이어져 왔으며, 고엔카는 1969년 인도로 건너가 이 명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위빳사나는 '있는 그대로 보다' 라는 의미로, 세상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삶의 기술' 이다.

고엔카의 명료한 가르침과 이 명상 효과는 그가 지도하는 코스에 참가한 미얀마와 인도, 스리랑카의 여러 고승에게 인정 받았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고엔카에게 찾아가 위빳사나 코스에 참가하게 했는데, 그들은 이 명상을 통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되고, 그 후 달라이 라마와 고엔카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현재 이 명상법은 인도사회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인도의 폴리스 아카데미에서는 고엔카의 10일 코스가 졸업하기 전에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수감자들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되며, 공직사회에서도 교양 명상으로 권장되는 등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명상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두 권의 책으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는 매년 최소 두 달씩 집중적으로 명상을 수행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가 15년 이상 꾸준히 참석하며 수행하는 프로그램 또한 고엔카가 지도한 위빳사나 코스이다.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은 최소 10일 동안 진행되는 코스서 명상법을 상세히 안내받고 수행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다. 이 명상 코스는 현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110여 개국, 200여 개의 센터서 정기적으로 열리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코스에 참가한다.

고엔카의 대표작이자 그의 생생한 가르침을 담아 처음으로 인가 받은 이 책은 10일 코스를 기준으로 위빳사나 명상의 핵심과 원리를 자세하고 친근하게 설명한다.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명상

누구나 고통의 문제에 직면한다. 우리가 분노로 고통 받을 때, 그것은 불교도만의 분노도, 개신교인만의 분노도, 비종교인만의 분노도 아니다. 분노는 분노일 뿐이다.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화와 증오를 품고 있으면 고통스럽다. 그래서 종파를 떠난 보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위빳사나 명상은 모든 인간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불교라는 종교적 전통을 통해 전해 내려왔지만, 종파적 성격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있는 그대로 본다' 는 위빳사나의 의미 그대로,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한 종교서 다른 종교로 바꾸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조직화된 종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진리, 즉 깨달으신 분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을 행복으로, 불순함을 순수함으로, 속박을 자유로, 무지를 깨달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엔카는 미얀마의 부유한 사업가 집안서 태어났다. 20대 때부터 사회적인 명망을 좇다 지독한 편두통에 시달리는데, 치료약을 찾던 중 친구로부터 위빳사나 명상 코스를 소개받아 참석하게 된다. 독실한 힌두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명상을 통해 육체적 고통의 치유뿐만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스승 우 바 킨 곁에서 14년간 수행한 뒤 위빳사나 지도자로 인가받은 그는 인도로 건너가 위빳사나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열린 마음과 이 명상의 비종파적 성격은 카스트제도와 종교 때문에 분열된 나라에 살고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다. 종교적 색채 없이도 유익한 위빳사나의 장점이 점점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엔카의 위빳사나 코스에 참여하게 됐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지만 세계인의 마음의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여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새천년 세계 평화 정상회담〉에서는 세계 각국의 종교 및 영성 지도자들 앞에서 종교적 조화, 관용, 평화적 공존에 관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

자기관찰 통해 자신 바꾸는 명상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법은 자기관찰을 통해 자신을 바꾸는 방법이다. 이 명상법은 몸과 마음의 깊은 상호 연결성에 초점을 둔다.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 연결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신체 감각은 몸의 생명력을 형성하고, 마음의 생명력과 지속적으로 연결돼 그것을 조절한다. 관찰에 바탕을 두고, 몸과 마음의 공통된 뿌리까지 스스로 탐험하는 과정을 통해 정신의 불순물을 녹여 없애고, 그 결과로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균형 잡힌 마음을 얻게 된다. "세상에 대한 붓다의 특별한 업적은 바로 진리를 직접 깨닫는 법을 가르쳐 경험적 차원의 지혜, 즉 바와나-마야 빤냐를 계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진리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이 방법이 위빳사나-바와나입니다."

"위빳사나는 특별한 보기를 의미하는데, 자신 안의 실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체의 감각을 주의집중 대상으로 삼아야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자신 안의 감각을 체계적으로, 감정의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위빳사나-바와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실상을 관찰하는 지혜를 체계적으로 계발하는 것을 뜻한다. 몸의 감각을 평정한 마음으로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의 덧없는 본성을 깨닫게 되고,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허무해지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들에 반응하는 습관 자체를 제거할 수 있다. 이 알아차림과 평정심이 위빳사나 명상의 핵심이며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믿음 하나만 가지고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그것이 논리적인지, 실용적인지, 유익한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성적으로만 따져 지적으로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유익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것이 진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엔카는 이 책에서 명상 수행을 통해 실제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자유도 구원도 있을 수 없음을 여러 번 강조한다. 적절한 환경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의 지도를 받아 차근차근 기초를 익혀야 하며, 누군가의 설명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상 분야 25개국 스테디셀러이자 한국에 최초로 정식 출간되는 이 책은, 명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한 입문서가 되고, 위빳사나 등 기존의 명상 수행자들에게는 한 단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좋은 배움의 계기가 될 것이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진행되는 죽음을 나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담마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강한 담마의 진동을 느낍니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미소 지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몸의 진리는 무의식의 마음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흙에 덮인 관처럼 말입니다. 붓다는 물질적인 몸의 진리를 밝혔습니다. 붓다는 몸이 매 순간 썩어가고 점차 시들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경험으로 이해했고, 몸 안에 있는 아닛짜의 진리가 닙바나(궁극적 자유)로 가는 열쇠임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에서 일으키는 불순물에 우리가 취합니다. 어떤 이는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도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술이나 마약이 일으키는 감각에 중독된 것입니다.

-슬픔은 매우 깊고 고통스러운 상카라를 만들지만, 명상을 통해 우리는 그것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수행을 통해 무상을 이해하고 평정심을 계발하면, 수행은 우리의 귀의처, 피난처가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균형을 되찾고 계속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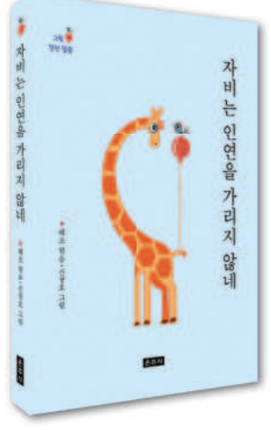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 순간 준비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라나누사띠(죽음 알아차림)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롭습니다.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 죽는다면,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 상태는 어떨까? 집착이 남아 있을까? 담마의 임무를 완성하려는 집착이라도 남아 있는가?'

그림 경전 말씀

우리 삶을 밝게 비추어주고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가르침!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수행길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행의 지남이 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되는 가르침!

어느 곳을 펼쳐보아도 보석 같은 부처님 말씀과 재미있는 삽화가 가득! 누구나 가볍게 읽으면서 감동과 여운이 있는 책!

혜조 엮음, 신창호 그림/국판/컬러/248쪽/값 14,000원

티베트불교에서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입보리행론 강해 1~3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간명한 게송으로 전하는, 대성취자 샨티데바의 가르침!

『입보리행론』에 대한 가장 방대한 해설서!

진메이펑춰 린포체의 직간접 수행 경험과 수많은 대승 경론, 중국 고전까지 넘나드는 풍부한 해설은 강한 흡인력과 설득력으로 보리심을 불러일으키고 참된 보살행으로 이끌어 준다.



샨티데바 게송/진메이펑춰 린포체 강설/지엄 편역
신국판/양장/1권 668쪽, 2권 656쪽, 3권 680쪽/각권 값 3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현대적 변화 모색한 우리 '단청'

무우수갤러리 개관 기념 '단청'
1월 20일~2월 14일까지 열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노재학 作, 울산 신흥사 구대웅전 천정반자의 종다라니, 사진



황두현 作, Dharma Figure 1, 150×100, 면에 채색

노재학 문활람 등 7인 참여 해
단청 주제로 한 현대적인 작품
사진, 회화 등 20여 점 선보여

"한국 단청 고구려벽화서 보여
단청의 예술적 가치 인식 부족
충분한 조명과 모색 활용해야"

한국의 단청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변화를 모색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 인사동에 문을 연 무우수갤러리(대표 조수연)는 2월 14일까지 개관 기념으로 기획전 '단청'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노재학(사진), 문활람(문화재 모사), 이양선(회화), 정금률(음향), 최경준(영상), 최문정(전통회화), 황두현(회화) 7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회화, 사진, 영상, 음향, 설치 등 단청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단청은 건축물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식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아름답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비바람, 햇빛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손상과 훼손을 막아 오랫동안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단청은 위의 목적 이외에도 잡귀를 막거나 건축물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단청은 청색 · 적색 · 황색 · 백색 · 흑색의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목조건축물에 다양한 무늬와 그림으로 그려져 왔다. 한국의 단청은 고구려 벽화에서부터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주변국의 단청과는 차별화된 한국만의 특색을 가지고 발전했다. 다양한 문양의 조합과 오방색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단청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건축에 사용됐는데, 그 가운데 장엄적 기능은 여러 분야로 활용됐다.

독특한 색의 조합과 다양한 문양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단청은 관공서에서는 물론 각종 국제행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되는 등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청의 장엄적 가치에 비해 단청의 예술적 가치와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명과 모색이 부족한 현실이다. 무우수갤러리는 "단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청의 의미부터 다시 짚어보아야 한다"며 "단청을 단순 기술적인 표현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은 변해야한다"고 말한다.

전통미술의 현대화에 앞장서고자 문을 연 무우수갤러리가 개관 기념으로 마련한 이번 첫 전시는 단청에 대한 충분치 못한 예술적 가치의 인식과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양한 해석을 통해 단청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이끌어 내고, 관람객들에게 단청의 역사, 재료, 제작 과정, 제작 방법과 예술성 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활람 작가**는 특수기법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석채(石彩) 모사도를 선보인다. 일본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문화재보존 수복학과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통해 문화재모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문 작가는 작가만의 특수기법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모사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다.

△**노재학 작가**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오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단청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끌어낸다. 노 작가는 그 동안 단청이란 주제로 많은 작품 활동과 출간에 매진해왔다. 한 장의 사진이라도 제대로 남기기 위해 같은 장소를 수십 번 찾았으며, 수백 번의 셔터를 눌러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과 작품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독특한 이력의 노 작가는 사진과 미학을 독학하며 궁궐과 전통사찰, 서원 향교의 유가건축 등에 남아 있는 단청문양을 20여 년간 관찰 · 연구해 왔다. 노 작가는 고색창연한 단청문양을 인공조명이 아닌 자연 빛을 이용해 사진에 담았으며 전통 단청의 세계를 대칭과 비대칭, 자기 유사성의 반복 등 수학의 프랙탈 원리와 테셀레이션 기법으로 재해석했다. 노 작가의 사진 작업은 궁궐, 전통사찰 등의 천정반자에 장식한 단청문양을 전면적으로 종합하고 조명한 최초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문정 작가**(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는 지금까지 단청 문화재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단청 채색 현장에서 단청을 하며 전통단청은 물론 전통 단청의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단청의 독특한 문양과 색감을 활용한 새로운 구상으로 작품세계를 펼치고 있다.

△**이양선 작가**는 세종미술인상을 수상한 작가로, 단청에 사용되는 오방색을 활용하여 한국의 철새, 무궁화 등을 작품의 주제로 작업해 왔다. 오랜 작품 활동에서 오방색을 응용하며 한국적인 작가만의 작품세계를 이끌어냈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황두현 작가**는 문화재수리기능자, 기술자(단청)로 청년단청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작가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전통문화우수상품전 대상 수상자인 황 작가는 전통단청을 '레고'라는 장난감과 곤충, 운동화에 대입시키며 작가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단청을 새롭게 재해석한 황 작가의 작품세계는 지난 몇 차례의 전시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최경준 작가**는 여러 미디어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젊은 작가로 환경부 주관 환경포스터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영상미술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잘 드러내는 작가로 미디어아트와 문화유산을 연결 짓는 작업에 참여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단청이 갖는 예술적 가치를 영상으로 표현했다.

△**정금률 작가**는 다양한 소리를 이용하여 공간을 표현하고, 재생되는 음향으로 공간의 재현, 확장, 변형을 추구하는 작가다. 색은 각각의 파장을 가지고 있고 시신경이 그 파장을 받아들여 인지하고 구분해내는데, 이것은 사람이 소리를 감지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기도 하다. 작가는 빛과 소리가 파장으로 전달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붉은색과 녹색을 소리로 표현했을 때의 모습과 그것이 일정한 패턴과 상징을 가진 단청처럼 구성이 됐을 때의 모습을 표현했다. 단청의 이미지를 소리의 패턴인 리듬과 화성으로 표현하여 스피커가 장치된 천장에서 그 소리들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수연 무우수갤러리 대표는 "이번 전시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단청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저력을 확인하고 세계로 확장시키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문의 (02)732-3690

부처 소리에 귀 기울이다

국립대구박물관 온라인콘텐츠
'깨달음을 찾는 소리, 소리로 찾은 진리'

"긴 옷자락을 휘날리며 하늘을 나는 천인이 양손에 악기를 들고 연주한다. 중생에게 극락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천상의 소리를 전한다. 부처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한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함순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 '깨달음을 찾는 소리, 소리로 찾은 진리'(이하 깨달음을 찾는 소리)이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 박물관 방문의 어려움, 학교 현장의 요청에 따라 누리집에 온라인콘텐츠존을 마련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온라인콘텐츠존의 콘텐츠는 전시, 교육, 소장품을 주제로 한 30초~5분 분량의 영상으로, 전시 콘텐츠는 대구박물관의 상설전시와 특별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종료된 9개의 특별전도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는데, 그 중 불교문화 속의 '소리'와 불교의 '깨달음'을 소재로 한 '깨달음을 찾는 소리'가 눈길을 끈다.

영상 '깨달음을 찾는 소리'는 국립대구박물관이 2017년 5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최했던 특별전을 온라인콘텐츠화 것으로, 불교문화에 담긴 유 · 무형의 소리를 모으고 그 소리에 담긴 참 뜻과 깨달음의 의미를 소개한다.

이번에 온라인콘텐츠로 제작된 영상은 특별전의 구성을 뼈대로 재구성했다. 지난 특별전은 총 4부로 구성됐는데, 1부 '울림響, 소리로 일깨우다'에서는 처마 끝 풍경소리, 새벽과 저녁의 범종소리, 법고 · 목어 · 운판 등 불전사물 소리 등을 소개하고, 2부 '말씀言, 글소리로 깨우치다'에서는 진언 등 부처님 말씀을 소개한다. 그리고 3부 '나타남應,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다', 4부 '수행悟, 깨달음을 찾아가다'로 이어진다.

영상 '깨달음을 찾는 소리'에서는 범종과 법고 소리 등 특별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소리(음향)가 더해져 입체적인 효과와 또 다른 감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범종, 독경 등 각각의 소리가 지닌 의미를 알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불교문화 속에 존재하는 '소리'의 의미와 깨달음을 궁극으로 하는 불교의 진리를 전한다.

콘텐츠는 웹과 모바일로 즐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박물관 누리집 내 온라인콘텐츠존'과 '국립대구박물관 유튜브'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누리집-https://daegu.museum.go.kr/

△유튜브-http://youtube/c/국립대구박물관DaeguNationalMuseum/featured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JxUFmBZRx1g&feature=youtu.be

박재완 기자





지광국사탑 보수 완료… 귀향 준비 마쳤다

국립문화재硏 5년간 보존처리… 모르타르 제거 · 결실부재 대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에 의해 반출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던 '승탑의 백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제101호)이 본래 모습을 찾고 귀향 준비를 마쳤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정소영)는 "2016년부터 5년여에 걸친 지광국사탑 보존처리를 완료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를 담은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 · 복원Ⅲ〉 보고서를 발간해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광국사탑 관련 문화재 정보와 보존처리 관련 내용을 웹툰으로 제작해 국민에게 온라인 공개키로 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제101호)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세워졌던 고려 시대 국사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으로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 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손꼽힌다.

화려한 만큼 더 아팠던 역사

문화재적 가치가 높았던 만큼 지광국사탑은 근현대시기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지광국사탑이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를 떠나게 된 시기는 1911년이다. 일본인 와다 쓰네이치(和田常市)가 탑을 매입했고, 이를 당시 서울 명동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에 조경용으로 전시하게 만들었다.

1912년에는 이를 남산 기슭의 저택으로 탑을 옮겼다가, 다시 일본 오사카 귀족에게 팔아 불법으로 반출시켰다. 오사카 귀족은 지광국사탑을 자신의 가문 묘지 정원 장식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를 안 조선총독부가 반환명령을 내리면서 와다는 탑을 돌려받아 조선총독부에 기증했다.

그래도 지광국사탑은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는 갈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린 경복궁의 장식재 구실을 하기위해 옮겼기 때문이다.

6.25전쟁은 지광국사탑에게 치명상을 안겼다. 1951년 지광국사탑은 폭탄에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이 파손됐다. 당시 피폭으로 탑의 상륜부와 옥개석은 1만 2000여 조각으로 쪼개졌다. 전쟁 이후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원기술자 故 임천 선생이 탑을 복원 · 수리했고, 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자리를 잡았다.

해체보수로 새 모습을 찾다

이후 지광국사탑은 2005년과 2010년 시행된 정기조사와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2015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다수의 균열과 모르타르(Mortar) 복원 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다. 특히, 모르타르로 복원된 옥개석과 상륜부는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석탑의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면서 2015년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 · 보존처리가 결정됐다.

이에 지광국사탑은 2016년 3월 22일 해체보고식을 갖고, 4월 5일 해체가 완료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됐다.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확인한 석탑의 상태는 심각했다.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957년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한 부분이었다. 전체 탑의 10.6%가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됐으며, 상륜부와 옥개석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옥개석의 경우 48%가 복원 부재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사용됐다. 또한 이를 지탱시키기 위해 59개의 철심이 탑에 박혀 있었다.

석탑의 풍화도 '중간에서 높은 단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백화와 흑화 현상도 상당히 진행됐으며, 탈락 · 박리 · 생물 피해 · 조류 배설물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탑신석 수지처리면 미세보정을 하는 모습. 지광국사탑은 5년간의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원주로의 귀향 준비를 마쳤다.

1911년 日人 의해 일본 반출
한국전쟁 폭격 파손 등 고난

2019년 원주로 환지본처 결정
이전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

이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16년 석탑을 완전 해체하고 지금까지 보존처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해체부재들을 일일이 기록했으며, 모르타르는 걷어냈다. 결실되어 없어진 부재에 대해서는 신석재로 새로 제작했고, 파손부재들은 접착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관계자는 "새로 구해야 하는 신석재들은 산지(産地)를 과학적으로 추정해 가능하면 조성 당시 사용된 석재와 가장 유사한 재질로 보존처리하고자 했다"면서 "유리건판과 실측도면 등을 바탕으로 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결실부분의 도상을 복원했고, 전통기술과 도구를 사용해 가공 · 접합했다"고 밝혔다.

또한, 탑신석 사리공에서 발견된 옥개석 파손부재 조각과 법천사지에서 발굴된 하층 기단 갑석 조각을 과학적 조사와 고증을 거쳐 원래 위치에 복원했고, 1957년 수리 당시 잘못 복원된 옥개석의 방위와 추녀 위치를 바로잡는 등 과학적 · 인문학적 융복합 연구를 통해 지광국사탑의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탑 이전까지 남은 과제는

제 모습을 찾은 지광국사탑은 이제 본래 자리인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지난 2019년 6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에서 지광국사탑의 원주 법천사지 이전을 결정해 귀향은 결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종적인 이전 위치 선정은 과제로 남았다.

현재는 법천사지 승탑 위치에 보호각을 세워 보승탑의 원래의 위치에 보호각을 세워 복원하는 방안과 법천사지 내 건립을 추진 중인 전시관 내부로 탑과 탑비를 함께 이전해 보존 · 전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원주시는 법천사지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종합 전시 · 홍보하는 전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보호각은 사지 주변 경관 저해의 문제점이 있으며, 전시관 이전은 지광국사탑을 보존하는 데 용의하나 복원과 귀향의 역사적 진정성이 문제가 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문화재청과 원주시가 긴밀히 협의해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석조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과학적 보존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존처리를 완료한 지광국사탑의 면면. 사진 왼쪽부터 앙화, 옥개석, 탑신석.

한글 불교전서 100권 출간 의의 학술적으로 조명한다

동국대 ABC사업단 학술대회 1월 29일 비대면 방식 진행돼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단장 김종욱)이 발간하고 있는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이 발간된다. 이를 맞아 그간의 번역 결과와 의의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1월 29일 교내 원흥관 3층 i-SPACE에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출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기록 문화유산아카이브(ABC)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출간 사업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총 324종에 달하는 불교저서를 집대성한 한문불전 '한국불교전서'(전 14책)를 한글화하는 사업이다. 각 시대 별 고승들의 사상과 행적, 불교문화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들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번역하고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사업은 2010년 시작됐으며, 불교학술원은 매년 7권 가량의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왔고, 10여 년에 걸쳐 100권 출간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이다.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출간 기념식 및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고, 일반 청중은 유튜브(http://www.dongguk.edu/mbs/kabc/)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다.

기념식은 불교학술원장의 개회사와 윤성이 동국대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어 김종욱 ABC 사업단장의 경과보고로 이어지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치사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이 축사가 예정돼 있다.

학술대회는 '21세기 한국불교대장경,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출간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다. 2개의 섹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원효 저술의 번역 성과와 연구사적 가치(한명숙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불가문집 번역의 성과와 의의(김승호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 △조선시대 불교사와 한글본 한불전의 성과(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 교수) △ABC아카이브 현황과 국제적 활용 방안(김성욱 컬럼비아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교수) △한국불교전서 보유편 편찬의 현재와 미래(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표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송일기 前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천학 동국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 교수, 김성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은 "한국불교전서의 번역 원고를 모두 간행하는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는 총 200여 권으로 예상되는데, 1월 중 100권이 발간된다. 이를 기념하고 그 성과를 보고하는 의미에서 출간 기념식과 함께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면서 "전통문화를 이 시대에 재창조하는, 숭고하고 지난한 과정의 역주서 발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



▶ 5회 예고
왕비의 견제로 이발소 잡일을 하게 된 다르마는 이발사 중 한 명인 왕비의 심복에게 곤잘 구박을 받는다. 그러나 다르마는 몰래 울면서도 잘 참아낸다. 마침내 이발사가 된 다르마는 빔비사라왕을 만난다.

다르마, 이발소로 보내지다

자나사나가 이중 목책을 지나 외성 동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빠딸리뿌뜨라 외성 동문의 크기는 짬빠성의 성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했다. 외성 동문 앞에 서면 누구라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 누각에 서 있던 수문장이 달려나와 자나사나를 맞이했다.

"구루시여, 어서 오십시오.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 잘 모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수문장은 아지비카교 승복을 두른 자나사나를 바로 알아보았다. 이는 빔비사라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아지비카교 수행자들의 위상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아지비카교 수행자들이 몸에 걸친 승복은 말할 수 없이 남루했다. 승복은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겨우 가슴과 엉덩이를 가렸다.

자나사나는 아지비카교 사원으로 곧장 걸어갔다. 사원은 빠딸리뿌뜨라 내성 안의 궁궐 맞은편 언덕에 있었다. 외성에 사는 주민들의 집은 보잘것없었다. 거적을 둘러쓴 움막이 대부분이었다. 움막에서 흘러나온 하수는 악취를 풍겼다. 공동우물이 드문드문 있고, 성민들은 공동우물 터 웅덩이에서 손발을 씻고 빨래를 했다. 시커먼 상체를 드러낸 사내와 젖가슴과 엉덩이만 가린 여인들이 거리를 활보했다.

상점들은 도로변에 다닥다닥 늘어서 있었다. 토기점은 항아리부터 그릇, 아기손바닥만 한 짜이잔까지 토기들을 한가득 진열해두고, 한쪽에서는 여인 두세 명이 토기를 빚었다. 대장간에서는 농기구나 칼을 팔았고, 포목점에서는 사내들의 흰색 도티, 여인들의 붉고 노란 사리와 숄을 줄에 매달아놓고 호객했다. 귀걸이, 팔찌, 목걸이, 반지 등을 파는 가게도 눈에 띄었다. 다르마는 은팔찌와 은반지를 하나씩 짬빠성을 떠날 때 어머니가 준 돈으로 샀다.

"다르마여, 다시 보지 못할 수 있으니 잘 봐요."

"왜 그러죠?"

"왕족만 사는 내성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니까."

외성과 내성에 사는 사람의 신분은 달랐다. 외성에는 바이샤 상인과 농사꾼, 수드라 이발사와 대장장이, 달리뜨 백정 등이 살지만 내성에는 브라흐민 왕족과 끄샤뜨리아 귀족, 수행자들만 거주할 수 있었다.

내성 성문은 외성의 그것보다 작았다. 내성을 두른 석성도 외성에 비해 낮았다. 경계도 삼엄한 외성 성문과 달리 느슨했다. 콧수염을 팔자로 기른 수문병사가 신분과 용건을 낱낱이 확인한 뒤 들여보냈다.

"빵갈로바뜨사 구루를 만나러 가오."

"아! 왕자님들을 가르치는 구루를 만나러 가는군요. 어서 들어가시오."

빠딸리뿌뜨라 성에서는 빵갈로바뜨사 이름만 대면 어느 문이든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수문장들은 왕자에게 줄을 서려고 지나친 호의를 베풀기도 했다. 수문장이 소리쳤다.

"아지비카교 사원까지 안내해 드려라!"

"난 여러 번 드나든 사람이오. 그러니 굳이 안내할 것은 없소."

그래도 수문장은 막무가내였다. 눈을 부라리며 수문병사에게 지시했다.

"이놈아! 저 여인 분의 보따리라도 들어주라는 말이다."

"예, 알겠습니다."

수문병사가 다르마의 보따리를 빼앗다시피 해서 들었다. 그러자 자나사나가 난처해하는 다르마에게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성과 외성의 집들은 판이하게 차이가 났다. 내성 안은 극락세계 같았다. 베란다가 달린 집들은 깨끗하고 우아했다. 모든 집에는 사각의 붉은 벽돌담이 있고, 벽돌담 안의 정원에는 만발한 부겐빌리아 꽃과 위엄 있는 공작야자수가 서너 그루씩 자라고 있었다. 도티와 사리를 입고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의 표정은 밝았다. 신분이 높은 것 같은 한 여인은 서너 개의 팔찌를 차고 뽐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두 발목에 찬 발찌들이 부딪치면서 경쾌한 소리를 냈다.

이윽고 눈앞에 아지바카교 사원이 보였다. 사원은 훵하니 지붕이 없었다. 벽돌로 바닥을 깔아 기도하는 구획만 표시해 놓았을 뿐이었다. 숙소는 사원 옆의 숲인 모양이었다. 크기가 어마어마한 반얀나무 고목이 한 그루 있는데 그곳은 빵갈로바뜨사의 기도처라고 했다.

"우리 수행자들은 잠잘 때는 숲속으로 들어가요. 빵갈로바뜨사 구루는 저 반얀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지요."

"자나사나 구루께서도 노숙을 하세요?"

"동굴에서 나오면 노지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지요. 다리를 뻗고 자본 지 오래됐어요."

수문병사가 보따리를 기도하는 벽돌바닥 위에 놓고 돌아갔다. 빵갈로바뜨사가 기도하고 잠을 잔다는 반얀나무의 허리에는 진언이 새겨진 조그만 깃발들이 허리띠처럼 둘러쳐 있었다. 빵갈로바뜨사는 보이지 않았다. 자나사나가 말했다.

"여기서 좀 기다리시오. 궁으로 들어가 빵갈로바뜨사를 만나고 오겠소."

"구루시여, 저도 따라갈래요."

"안 되오. 헛걸음할지 모르니까."

자나사나는 다르마를 조금이라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다. 다르마는 머잖아 왕비가 될 몸이었다.

"다르마여, 잠시 쉬고 있는 것이 좋겠소. 내가 빨리 다녀오겠소."

그런데 바로 그때 빵갈로바뜨사가 숲길 쪽에서 오고 있었다. 다르마가 먼저 보았다. 다르마는 빵갈로바뜨사를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약간 절뚝거리는 것이 특징이었다. 오랜 좌선으로 무릎관절이 헐어 생긴 습관이었다.

"구루시여, 저기 빵갈로바뜨사 구루가 오고 있어요."

"오! 맞습니다."

빵갈로바뜨사는 황금색 비단승복을 입고 있었다. 자나사나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자 빵갈로바뜨사가 말했다.

"자나사나여, 무얼 그리 놀라시오? 대왕께서 하사하신 승복이라오."



"아지바카교 수행자가 그런 비단승복을 입어도 되는 것이오?"

"나도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대신들이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이 누더기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해서 할 수 없이 입고 있다오."

"그렇다면 모르지만."

자나사나가 할 수 없다는 듯 받아들였다. 빵갈로바뜨사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했다.

"다르마여, 부모님은 잘 계시오?"

"네, 엄마께서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 계시니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에게 공양 받은 것을 이제 내가 갚아야 될 때라오. 내가 대왕의 마지막 왕비에게 말해두었소. 조금 있다가 왕비를 만나러 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구루시여."

빵갈로바뜨사가 말하는 왕비는 15번째 젊은 왕비였다. 왕비가 될 여인이 들어오면 마지막 왕비가 단속을 했다. 첫 번째 왕비인 정비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 이하 왕비들 사이에 서열과 질서를 잡기 위한 궁내 전통이었다. 빔비사라왕의 마지막 왕비인 15번째 왕비는 춤도 잘 추고 미모가 빼어났다. 다만, 질투심이 많은 데다 언행이 가볍고 궁녀들을 모질게 닦달하여 잡일을 하는 여종들끼리 수군댈 때는 '왕비님'이라고 하지 않고 '빠빠님'라고 불렀다. 빠빠란 평민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악행이란 뜻이 있었다.

빵갈로바뜨사가 궁으로 가면서 말했다.

"다르마여, 왕비가 젊어서 때로는 언행이 민망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잘 참아야 해요."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브라흐민께서 뭐라 하시던가요?"

"네 인생은 짬빠성에서 오는 뱃길처럼 순한 길도 있고, 사나운 길도 있고, 평온한 길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빠딸리뿌뜨라성에 이른 것은 그 모든 길을 다 지났기 때문이다. 어떤 길을 만나든 좌절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현명하신 브라흐민!"

"저는 아버지에게 약속했어요. 어떤 길이든 좌절하지 않겠다고요."

자나사나가 합장하며 말했다.

"다르마여,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소. 그러니 짬빠성으로 돌아가겠소."

"고맙습니다, 자나사나 구루시여. 이걸 부모님께 전해주셔요."

다르마가 호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외성에서 산 은팔찌와 은반지였다.

"꼭 전해드리겠소."

"팔찌는 엄마 것이고 반지는 아버지께 드리셔요."

자나사나는 들어왔던 내성 성문으로 다시 향했다. 빵갈로바뜨사는 무덤덤하게 자나사나와 헤어졌다. 그러나 다르마는 자나사나가 돌아서 등을 보이는 순간 눈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렸다. 짬빠성으로 돌아가는 자나사나가 부럽기도 하고 부모 생각이 나서였다. 다르마는 빵갈로바뜨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마음이 곧 심란해졌다.

'젊은 왕비님 언행이 민망하다고 하는데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보다 나이가 많을 테니 언니처럼 친절하지 않을까? 아니야, 무조건 트집을 잡아 나를 혼낼지도 몰라.'

다르마는 침을 삼키면서 주먹을 쥐었다. 마음속으로 좌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도 가슴은 조마조마하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윽고 빵갈로바뜨사는 별궁 앞에 서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빵갈로바뜨사이옵니다. 다르마를 데려왔사옵니다."

"수고했소."

왕비가 문을 조금 연 채 다르마를 살펴보았다. 다르마는 왕비의 차가운 눈빛을 느꼈다. 왕비가 짧게 한 마디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짬빠성에서 왔사옵니다."

"시골뜨기군."

"소승이 왕비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사옵니까? 짬빠성 브라흐민 따님이라고요."

"어쨌든 대왕을 바로 만날 수는 없지. 빠딸리뿌뜨라 성의 공기를 더 마셔야겠어. 시골뜨기 냄새가 빠질 때까지."

빵갈로바뜨사가 놀라서 물었다.

"대왕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소승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사옵니까?"

"허락은 받았지요. 하지만 이런 시골뜨기를 바로 보낼 수는 없소."

"그렇다면 소승이 데리고 갔다가 부르실 때 다시 오면 어떻겠사옵니까?"

"구루시여, 그럴 필요는 없소."

왕비는 공작새 깃으로 만든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르마는 입 안에 침이 마르고 입술이 탔다. 왕비가 무섭고 궁에서 생활할 것이 두려웠다. 왕비가 부채를 내렸다. 다시 드러난 왕비의 얼굴은 더 차가웠다. 왕비가 별궁 화원에 물을 주고 있던 궁녀를 불렀다.

"이 시골뜨기를 이발소로 보내 이발하는 일을 배우게 하라."

"아니, 왕비님. 이발은 수드라가 하는 천한 일이 아니옵니까?"

"대왕님 머리를 깎는 일이니 귀한 일이오. 이발사가 되려면 잡일부터 배워야 할 것이오."

다르마는 이발사라는 왕비의 말에 기절할 뻔했다. 현기증이 일어나 쓰러지지 않으려고 겨우 두 발에 힘을 주며 버텼다. 빵갈로바뜨사가 미안해어찌할 줄을 모르고 당황했다. 왕비가 문을 쾅 소리 나게 닫았을 때에야 두 사람은 정신을 차렸다.

"다르마여, 왕비 되실 분에게 이발 일을 시키다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소?"

"구루시여, 제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저는 이겨낼 거예요."

다르마는 별궁 궁녀를 따라 갔고, 빵갈로바뜨사는 탄식을 하며 아지비카교 사원으로 걸어갔다. 다르마의 눈에는 궁중 정원의 꽃들이 슬프게 비쳤다. 조금도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정원 우리 안에 갇힌 공작새가 긴 꼬리를 끌고 가면서 고개를 젖힐 때마다 꺄아악 꺄아악 하고 울었다. 빠딸리뿌뜨라 궁중 정원에는 유독 공작새가 많았다. 하루에도 몇십 마리씩 왕실 식탁에 오른다는 공작새였다. 〈계속〉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인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❷ 불교와 선



▶ 한줄 요약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의 의미를 살피면 '선'의 가치가 보인다.

禪의 시작은 부처님 깨달음

禪이란 무엇인가?

선이라 하면, 흔히 조용히 앉아서 하는 참선을 떠올린다. 참선하면 좌선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선종의 바이블로 불리는 〈육조단경〉에는 '좌선'을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앉음(坐)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禪)"이라 한다. 이를 보면, 좌선은 앉아서 하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선(禪)만큼 어려운 말도 없다. 선이란 무엇인가? 선은 말과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어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 한다. 말의 길이 끊어진 것이라니...이 무슨 황당한 말인가?

하지만, 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금강산을 본 사람이 금강산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말을 하더라도 금강산을 직접 본 것과는 천지 차이다. 이처럼 선은 말과 문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언어도단의 선을 글자와 말로 표현한다면 동쪽으로 가야 할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선이 언어도단의 세계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누가 알겠는가? 선에 대하여 무슨 말이라도 해야 그것이 좋은 줄 알듯이 달 찾는 이에게는 손가락이 필요한 법이다.

그런 뜻에서 선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먼저, 동아시아에 선을 처음 전한 분이 달마대사이다. 허나 안타깝게도 달마대사 어록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 더구나 선의 종지, 돈오의 입장에도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선사들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종의 최고 어록은 6조 혜능대사의 〈육조단경〉이다. 선종의 교과서, 바이블이라 한다. 〈육조단경〉 전체가 선의 입장을 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선(禪) 관련하여 두 가지 말이 나온다. '좌선'과 '선정'이다. 좌선은 앞서 말했듯이 앉아서 하는 참선이 아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것이다. 선정(禪定)이란,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禪)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定)이다"라고 육조스님은 말한다. 즉, 선이란 마음이 내 밖의 모양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 육조스님 말씀으로 선을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참 대단하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알쏭달쏭할 것이다. 그래서 선을 알기란 참으로 어렵다. 우리 초조 도의스님이 선을 말하자 '마구니말'이라 배척받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선은 노장사상에 영향 받은 중국 조사불교?

불교계 일부에서 "선은 불교가 중국에 와서 노장사상과 만나 탄생했다"는 〈선의 황금시대〉와 같은 주장을 검증 없이 받아들여 그런 인식이 상당하다. 심지어 불교학자와 선의 전문가라는 분들도 그런 주장을 한다. 근래에는 '선불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선불교'라는 말은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처럼 새로운 흐름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모양이나 과연 그런 개념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근래 남방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초기불교'라 표현하는 것도 의문이다. '초기경전'이라면 몰라도 초기불교란 부처님이나 부처님 직제자들이 가르침을 펴는 시대를 일컫는 말인데, 부처님이 열반하신지 2600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초기불교'라니? 초기경전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초기불교란 표현만큼이나 '선불교'도 의문이다. 선불교라는 표현은 혼란을 조장한다. 왜냐하면, 선도 불교 안의 한 사상이지, 불교를 떠나거나 선불교라는 또 다른 가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굳이 강조한다면 불교 선, 또는 불교의 선사상이 좋을듯하다.

또 남방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나 교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더러 "선은 부처님 가르침에 없는 중국불교다"하거나 "선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동아시아 사상흐름서 탄생
인류보편 가르침에 기반해
부처의 깨달음에 주목해야
선의 근원은 '중도 대선언'

이것도 오해다. 불교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만으로 고정시켜 보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금강경〉에 "내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여래를 비방하는 것이다"라거나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다"라고까지 하셨다.

한 때 한국불교계에도 '대승비불설'이 전해져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승불교가 부파불교시대의 편향을 극복하여 부처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운동으로 정리한다(물론 남방 상좌부승가에서는 부파불교시대의 전통으로 대승 경전을 부정하고 북방 불교의 승가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다).

선(禪)도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기원한다. 선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 현실에 인연하여 나타난 사상이다.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선의 시원은 달마대사로 보는 것에 특별한 이견은 없다. 달마대사가 전한 선은 6조 혜능대에 와서 완전히 정착되며 창조적인 특색이 나타나는데, 〈육조단경〉에 잘 드러나 있다. 보편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모은 것에 '경(經)'자를 붙이는데, 유일무이하게 부처님 제자, 그것도 1천년이 넘는 후대에 중국 혜능스님이 말한 어록에 '경'자를 붙여 예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비록 선이 중국 당나라시대에 출현하였다 하더라도 한반도 통일신라와 고려, 그리고 일본까지 한자문화권이었고, 당대 불교사상문화가 광범하게 공유되던 시대인바 선은 동아시아 불교의 특색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육조 혜능대사를 비롯하여 마조, 임제, 대혜, 고봉, 중봉스님이나 우리나라 도의, 보조, 태고, 나옹, 서산대사 이래 한국불교와 동아시아 어느 선사도 부처님을 교조로 받들었지 노자와 장자를 스승으로 받든 이는 한 분도 없다.



육조 혜능대사 진영. 〈육조단경〉을 통해 선에 대해 알 수 있다.

특히, 서산대사는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라 하셨다. 더 나아가 '선은 중국 조사불교'라 폄하하며 한국불교가 왜 중국불교를 따라가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논리라면 부처님은 인도 사람인데 왜 인도불교를 배우느냐는 반론도 가능하니 불교를 모르는 주장이다.

불교는 예수교나 유교처럼 인류 보편 종교이다. 민족과 인종, 국가와 지역, 계급을 초월하여 인류 보편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불교다. 같은 이치에서 불교의 선도 인류 보편의 가르침인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지, 동아시아에서 출현하였다고 지역에 한정된 가르침이 아닌 것이다.

불교란 무엇인가?

선이란 부처님 가르침에서 인연한 것이니 불교를 모르면 선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선을 바르게 알려면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는 누구인가? 깨달은 분이다.

인도 말로 '붓다(buddha)'라 하는데, '깨어난 자'라는 뜻이다. 누구든지 깨치면 부처라 하니 붓다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다.

그럼 부처는 무엇을 깨쳤는가? 이것이 문제다. 부처가 깨어난 자, 깨달은 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무엇을 깨달았는가? 깨달음이 무엇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 그러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려면 말씀인 경전을 봐야 한다. 그런데, 불교의 경전은 8만4천이라 할 정도로 방대하고, 또한 너무나 다양한 말씀을 하여 공부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더구나 경전을 전하는 언어도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한문, 한글 등등 너무나 다양하고, 또한 남방과 북방으로 전하는 경전의 가지 수와 내용도 상당히 다른 것도 있다.

성철스님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다. 1967년 해인총림 동안거에서 행한 〈백일법문〉은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시작한다. 이를 근거로 불교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자.

〈초전법륜경〉의 중도대선언

부처님이 깨치고 처음 설한 것을 초전법륜이라 하여 불교사에선 가장 중요한 설법으로 평가한다. 깨치고 첫 설법이니만큼 방대한 불교 사상에서도 그렇다. 남방불교 일부에서는 초전법륜경을 외우게 한다고 들었다.

이 초전법륜을 기록한 경전은 남전 팔리어 〈마하박가(율장)〉와 〈쌍윳다니까야〉, 한역(漢譯) 〈율장〉과 〈아함경〉에도 보인다. 내용은 비슷하나 〈마하박가〉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다. 이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깨친 뒤고 오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쾌락과 고행의 양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 중도는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중도란 무엇인가? 여덟 가지 바른 길(八正道)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생각, 바른 삼매이다. 그리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으니,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남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이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 "

부처님의 이 말씀을 성철스님은 '중도대선언'이라 한다. 부처님은 이 중도를 깨침으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해탈하여 '불사(不死)의 문'을 열었다고 선언한다. 부처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속박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하는 중도를 발견하고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부처님은 이 〈초전법륜경〉에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한 해탈을 선언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중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중도는 곧 팔정도이고 사성제인데, 누구든지 이 중도를 깨치면 생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초전법륜 당시 부처님께 직접 이 중도 법문을 들은 교진여(남방에서는 꼰단냐)는 그 자리에서 돈오(頓悟)하여 부처님 이후 첫 깨달음을 성취하고 인가를 받는다. 나머지 네 비구도 차례로 깨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니 이것이 불교의 출발이다.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❷ 〈석보상절〉의 의미



▶ 한줄요약
훈민정음 반포 10개월 만에 24권의 〈석보상절〉과 600여 수의 〈월인청강지곡〉이 완성됐다. 이들 훈민정음 대장경에는 신미대사 등 11명의 조력자가 있었다고 한다. 〈석보상절〉 등은 이들이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기에 가능했다.

'집단지성 힘', 훈민정음 대장경



그림 · 강병호

훈민정음 반포 10개월 만에
'석보상절·월인천강' 제작해
신미대사 등 11명 편찬 조력

이들이 한글 창제에 관여 않고
어떻게 빠른 편찬 가능 했을까
'집단지성' 훈민정음 창제 초석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釋譜詳節)〉은 석가모니께서 태어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일생과 설법한 경전 내용(釋譜)을 자세히 할 것은 자세히 하고(詳) 간략히 할 것은 간략하게(節) 편집한 조선시대 최초의 훈민정음 불경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달(月)이 하나이지만 지상에 있는 천 개의 강(千江)에 똑같이 도장(印) 찍히는 것처럼 부처의 진리가 온 세상에 두루함을 노래(曲)한 것이다. 특히 〈석보상절〉의 내용을 게송처럼 요약한 것이다.

일반적인 불교 경전의 형식은 부처의 설법 내용을 전한 뒤에 요약한 게송이 이어지는 '산문+운문' 순서로 되어 있다. 산문 〈석보상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운문 〈월인천강지곡〉이 등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바늘과 실'처럼 한 세트요 둘이 묶여야 온전한 불교 경전의 형식을 갖춘 책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석보상절〉을 지을 때 이미 〈월인천강지곡〉이 예견되어 있던 것이요,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져야 할 운명이었다.

그리하여 1459년 세조는 이 두 책을 드디어 합편하였다. 조선의 최초 대장경 〈월인석보〉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불경의 '강설+게송'의 형식을 따르자면 제목이 '석보+월인'이 되어야 한다. 실제 지어진 순서도 〈석보상절〉이 먼저였으나 수양대군은 자신이 왕(세조)이 된 지 5년 후에 1459년 아버지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을 앞세우고 아들인 자기의 산문 〈석보상절〉의 순서를 뒤로 하여 '월인+석보'의 순서로 완성한다. 〈월인석보〉는 조선식 대장경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이 세 책은 부모와 자식이 대를 이어가며 쓴 책이요 둘이 합해 하나가 되고 나누면 셋이 되는 '다즉일 일즉다' 화엄사상을 실현한 책이라 하겠다.

불가사의한 집필 완성 속도

그렇다면 24권의 대작 〈석보상절〉과 600여수의 대서사시 〈월인천강지곡〉의 분량과 완성 속도는 어떠했을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21세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훈민정음 반포 10개월 만에 이렇게 방대하고 훌륭한 산문과 운문을 짓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책이 훈민정음 창제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방증이요,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월인석보〉 서문에는 책의 자문단으로 명기된 11명의 동참자가 등장한다. 정독을 해나가다 보면 〈석보상절〉에서는 김수온이, 〈월인석보〉에서는 신미의 목소리가 오버랩될 때가 있다. 과연 그럴까. 찬찬히 읽어보기로 하자.

한편 꼼꼼히 읽은 독자라면 세종과 세조가 두 책을 짓기 충분한 역량을 갖춘 불교학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읽기를 거듭할수록 이것은 한 천재의 단독 작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 없던 문자의 창조와 새 문자로 불교경전의 엑기스만을 모아 완성도 높게 편찬하는 작업은 집단지성의 힘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샘이 깊은 물은 내를 이루어 바다로 모인다.

신미대사와 김수온의 존재

현재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이는 신미 대사이고, 석보상절의 저본으로 추정되는 '중수석가보'를 편찬한 김수온은 그의 아우이다. 지금도 충북 영동 김씨 족보와 가문에는 그들이 훈민정음 창제와 그 문자를 활용한 〈석보상절〉, 〈월인석보〉 편찬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뿐이랴.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하고 수정 · 보완해 환골탈태시킨 〈월인석보〉에는 총 11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혜각존자 신미(信眉)와 판선종사 수미(守眉), 판교종사 설준(雪埈), 연경사 주지 홍준(弘濬), 前 회암사 주지 효운(曉雲), 前 대자사 주지 지해(智海), 前 소요사 주지 해초(海招), 대선사 사지(斯智), 학열(學悅), 학조(學祖), 가정대부동 지중추원사 김수온(金守溫)이 그들이다.

김수온빼고 모두 스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관여한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훈민정음으로 쓴 첫 번째 책에 자문단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을 모르는데 아무리 불교 관련 책이라 하더라도 훈민정음으로 쓴 책에 대하여 왕에게 왈가왈부 자문을 할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다.

한 발자국만 더 나가보자. 세조는 월인석보 편찬한 2년 후 1461년에 간경도감을 설치해 현재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거의 모든 주요 경전을 훈민정음 불경으로 재탄생시킨다. 〈능엄경언해〉를 필두로 〈법화경언해〉 〈금강경언해〉 〈반야심경언해〉 〈아미타경언해〉 〈원각경언해〉 등이 1462년부터 1467년 5년 사이에 훈민정음 불경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기에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미는 〈목우자수심결〉 〈사법어〉 〈몽산화상법어〉를 아예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훈민정음'이란 문자의 우수성, 독창성, 과학성, 체계성, 합리성이란 단어에만 열광한 채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이 우수한지 과학적인지를 답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설명할건가. 문자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말로 사용되고 문장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세상의 얼마나 많은 문자와 언어가 사어가 되고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가.

훈민정음은 600년 전 태어나 지금까지 싱싱한 활어처럼 세계를 좁다하고 헤엄치며 한류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것은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첫 번째 책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덕분이고 그것을 쓴 대표 저자들과 아직까지 우리가 눈감고 있는 집단지성들 덕분이다.

〈석보상절〉 서문 앞 〈훈민정음〉

사람들은 흔히 훈민정음을 얘기할 때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로 시작되는 세종이 지은 〈훈민정음〉 책 서문을 읊조린다. 이 서문이 〈월인석보〉에도 등장한다. 〈월인석보〉의 차례는 '훈민정음'으로 쓴 서문과 예의(例義)로 시작해 팔상도(八相圖), 〈석보상절〉 서문과 〈월인석보〉 서문, 〈월인석보〉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월인석보〉가 불교 책인데 훈민정음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 책의 목표는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첫 번째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새로 만든 글자 훈민정음을 익히고 그 다음에 새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 석보상절을 차근차근 익히게 하려는 배려였던 것이다.

독자가 세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다. 심지어 필자가 고등학교에 다닐 즈음에도 여자는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나와 같은 또래의 그들은 이제 50대가 되어 대학에 가고 70대에 한글학교를 다니며 글자로 열린 새 세상에 태어나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

21세기가 이러할진대 하물며 600년 전 양반 중심, 남존여비의 계급사회였던 조선에서 중국의 한자로만 이루어진 문자 철옹성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문자는 그 시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 힘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문자 세계를 열어준 사람이 바로 세종이다. 조선의 백성들 모두에게 특권을 준 것이다. 마치 신라의 원효가 왕족과 귀족만 읊조리던 '부처'와 '나무아미타불'을 대중에게 알려 준 것처럼.

이제 그의 마음자리에 서서 아들 수양대군의 입을 통해 지은 〈석보상절〉 서문을 읽어보자. 서문의 형식은 본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문을 해설하는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주석을 일일이 풀이하다 보면 본문의 맥이 끊겨 유려한 수양대군의 육성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하여 주석의 내용은 현대어 번역과 풀이에서 충분히 살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본문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한다.

〈석보상절〉 서

서문의 형식을 보면 먼저 한문에 토를 달아 굵고 큰 글씨로 원문을 쓴다. 그리고 거기서 설명이나 풀이가 필요한 사전적 정의를 한 줄에 두 칸으로 나누어 주석을 단다. 우리는 이것을 세주(細註) 또는 협주(夾註)라고 부른다. 그리고 줄을 바꾸고 한 칸 내려써서 훈민정음으로 지은 우리말 〈석보상절〉 서문이 펼쳐진다.

〈석보상절 서〉
釋譜詳節序
佛이 爲三界之尊ᄒᆞ샤
( )부톄 三界옛 尊이 ᄃᆞ외야겨샤
弘渡群生ᄒᆞ시ᄂᆞ니
( )衆生ᄋᆞᆯ 너비 濟渡ᄒᆞ시ᄂᆞ니 無量功德이 그지업서
몯내 혜ᅀᆞᄫᆞᆯ 功과 德괘 人天所不能盡讚이시니라
( )사ᄅᆞᆷ ᄃᆞᆯ콰 하ᄂᆞᆯ ᄃᆞᆯ히 내내 기리ᅀᆞᆸ디 몯ᄒᆞᅀᆞᆸ논 배시니라

〈석보상절 서〉
부처께서 삼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니/ 그지없어 못내 헤아릴 공과 덕은/ 사람들과 하늘들이 내내 (다) 기리지 못하는 바이시다.

〈석보상절〉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처께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세존(世尊)'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제도하셨다. 그러한 부처의 공덕이 그지없어 인간 세상과 하늘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루 다 말로 찬탄하지 못하도록 크디 크다는 것이다.

〈석보상절〉은 이렇게 부처의 공덕을 기리며 우리를 제도하러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에 '조선국어 대사전'이라고 할 협주의 순 우리말 풀이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보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김혜신의 **시네마 만다라** ❶ 영화 탄생 125주년: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



▶ **김혜신 영화 · 문화평론가**는 파리 제3대학교(소르본누벨)에서 영화영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전주대에서 강의를 해왔으며, 국제비평가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김혜신 평론가의 '시네마 만다라'는 지금까지 제작된 영화 중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월간 연재.

영화, 세상을 바꾸다

연재를 시작하며

'제7의 예술'로서 지난 125년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화가 중세적 팬데믹과 글로벌 미디어 자본의 각축장인 OTT 사이에서 역사상 아마도 가장 위태로운 시기 중 하나를 맞고 있다. 이 시점에서 심도 있는 기획 하에 '영화'의 탄생과 번영을 돌아보며 그 미래를 생각해볼 계기와 함께 그간 우리에게 다가왔던 빛나는 영화적 깨달음과 아름다움의 순간들을 소환해볼 지면을 마련해준 분들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한다.

남미의 작가 호르세 루이스 보르헤스(J. L. Borges)는 무엇보다 "관용적인 정신을 견지해온" 항상심과 비폭력으로 불교가 2500여 년간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깊이 공감하는 필자는 앞으로 그 넉넉한 품 안에서 다양한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외견상 불교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내용 혹은 이웃종교에 관한 언급도 배제하지 않고 끌어안을 것이다. 영화의 기원이 유럽인 이상 서구 영화를 깊이 이해하고자 할 때 그 기독교적 문화 풍토나 근본 철학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 때로는 이슬람 문화권의 감독들이지만 그 누구보다 더 영화 작품 및 활동을 통해 붓다(Buddha)의 정신이나 자비심을 구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초청됐던 이란의 마흐말바프(M. Makhmalbaf)가 대표적이다.

영화는 불교처럼 문화와 종교와 언어의 장벽을 모두 넘는 프리 '패스포트(여권)'이자 보편어로서 참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 본 연재는 보편어를 모색해온 영화의 시간 속에 담긴 각양각색의 무늬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초기 시네마와 영화(들)의 역사

1895년 12월 28일, 뤼미에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라프(Cinématographe)'라는 촬영 카메라와 영사 메커니즘이 일체화된 기제를 발명하고 그 신기술을 이용해 대중들에게 파리 도심의 그랑 카페에서 처음 관람료 1프랑짜리 '시네마'를 선보인다. 당시 기술로 최대치인 50초 내의 영화 10편이 프로그램이었고, 그 중에서도 1번 프로그램은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이었다.

〈시오타 역에 도착하는 기차〉(18%)는 말하자면 세계 첫 '흥행' 영화로서, 1895년의 첫 상영작은 아니다.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은 스크린으로부터 상영관 속으로 질주하는 듯한 증기기관차를 황급히 피하기도 하며 함께 전율한다. 이 점에서 세계 최초의 '공포영화'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어쩌면 오늘의 관객이 3D나 VR 혹은 최첨단 XR을 통해 가상현실을 첫 체험할 때 느끼는 감각과 비교할 수 있을 테지만, 당시의 문화 충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컸으리라는 짐작이 든다.



〈뤼미에르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의 한 장면(러시아 4K 전환 버전 유투브 캡처). 뤼미에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라프'라는 복합 기제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한 단편 열 편(해당작 포함)을 모아 영화사의 첫 프로그램을 편성, 이를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관람료 1프랑을 받고 상영했다. 세계 최초의 유료 극장 상영이라는 점에서 현대 영화의 기원으로 공인된다.

물론 서구에서 '매직랜턴(幻燈)'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한 원형적 영화 체험(장터에서도 대중적 인기가 있었던)은 18세기부터 있었고 19세기 후반 파리나 런던 같은 도시에서는 대형 '파노라마관'에 걸리는 볼거리도 유행한 바 있어, 당시 대중들에게 그와 유사한 시각 체험이 아주 생경한 것만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첨단 시네마토그라프로 촬영된 현실의 생생한 이미지를 화면에서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렇듯 카메라와 스크린 영사(映寫), 관객의 개념이 뤼미에르 형제로 대변되는 현대영화의 세축이다. 프로젝션을 통해 투사된 상이라는 의미인 영상(映像)은 원래 미국에서 즐겨 썼던 용어인 영화(映畫, Motion picture)와 다른 말이 아니다. 이를 고려할 때 '영화영상'이라는 말은 동어반복에 속하나, 오늘날은 영화예술 분야와 차별화하여 방송을 포함한 여타 영상영역(Audio-visual) 등을 포괄하기 위해 그러한 말을 쓰기도 한다.

사실 방송 영상의 기초는 독자적이라기보다 사운드와 이미지 예술인 영화학에서 온다. 오늘날 'Cinéma(프랑스어)', 'Kinema(독일어)'라는 말은 뤼미에르적인 카메라와 스크린 상영에 바탕을 둔 영화 매체이자 영화 상영관, 그리고 미장센을 포함한 일체의 영화학(시네마토그래피)까지 통칭하는 국제적인 약어이다.

시네마는 크게 보아, 움직임을 기록한 모든 동영상을 칭할 수 있으며, 사실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하는 설치영상 등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 'TV 부처'(1974)와 같은 설치작으로 미디어아트 혹은 비디오아트의 시조가 되는 백남준 또한 넓게는 '시네아스트'(Cinéaste, 영화감독을 포함하는 영화 예술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984년 새해 첫날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통해 세계 여러 곳의 공중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위성 아트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유럽에 있다 보면 이를 영화관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 그만큼 시네마의 영역은 폭넓고, 현대미술이나 방송 같은 인접 분야와도 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뤼미에르 형제가 제작한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 최초 상업영화로 기록돼
영화, 불교처럼 장벽넘는 자유자재 '프리 패스포트'

초창기 메이저 극장에 주로 걸렸던 영화로는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에 이어 멀리 미국 대중들까지 사로잡았던 조르주 멜리에스류의 픽션 혹은 판타지 영화가 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흥미로운 영화문화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가령, 아벨 강스(A. Gance)와 같은 이가 이미 1920년대 일반 상영관에서 멀티스크린을 가지고 작품을 기획, 상영하는 선구적인 형태들을 보여줬다는 것이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후일 미디어아트는 그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에 나란히 설치한 세 개의 대형 스크린으로 재현된 〈나폴레옹〉(270분, 1927)을 보며 장대한 스케일의 시각으로 '듣는' 오페라와도 같은 그 영화적 상상력에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오늘의 디지털영화는 규격화된 산업 규모는 커져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작품의 다양성과 실험성, 상영관 구조와 스크린 포맷, 배급과 '대중성' 면에서 초기 영화보다 창의적이고 풍요롭다고 하기 힘들다. 이 면에서 멀리 보아, 이 위기가 오히려 획일화된 지배구조 하에 무한 반복되어온 세계 영화산업에 균열을 일으키고 타성에서 벗어날 하나의 전기를 마련해줄지도 모른다.

팬데믹 한복판서 소환하는 기억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된 서구 사회에 정신적 위기와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왔던 1920년대는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성의 것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영화와 여타 예술이 시도됐던 때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 프랑스의 '누벨바그(Nouvelle Vague · New Wave)'라는 일종의 영화 운동도 포스트 세계대전 상황과 경제적, 정치적 난관 속에서였다는 점을 돌이켜본다. 이는 전 세계 영화의 르네상스와 '작가주의' 영화 붐을 일으키는 자극제가 되었다.

한국영화사에서도 1960년대는 유현목의 〈오발탄〉을 비롯한 수작들이 줄을 이었고 많은 관객(1961년 5800만 여명, 1969년 약 1억 7300만)이 호응했던 명실공히 영화의 르네상스기였다. 우리가 거의 준전시 상황인 코로나19 한복판에서 희망의 씨앗을 생각하는 근거는 그러한 역사적 기억을 통해서이다.

그 예를 도저히 열거할 수가 없지만, 러시아의 지가 베르토프(D. Vertov)만은 초기 영화언어의 정수와 혁신을 말할 때 빼놓을 수가 없을 듯하다. 그의 대표작 〈카메라를 든 사나이〉(1929)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베르토프는 무엇보다 진정한 보편어이자 대중 언어로서의 영화를 창안하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졌고 그 실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는 영화가 기존 유한 계층의 '예술' 언어들이 갖는 지배적 틀을 완전히 깨고 어떤 새롭고 순수한 '영화적인' 언어로 민중들에게 다가가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했다. 창조적 부정에 근거한 그의 영화적 태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지면에서 더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에서부터 초기 이야기들을 꺼낸 연유를 되짚어본다. 요는, 영화의 초심으로 돌아감으로써 앞으로 연재를 통해 많은 분과 더욱 열린 주제로 대화의 장을 열 수가 있고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포석을 한둘 놓을 수 있겠다는 복안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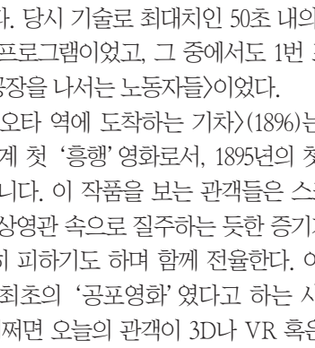
어려운 종교 교리들 또한 시원이나 초기로 돌아가 보면 오히려 이해가 쉽고 명확해지는 일면이 있듯이, 기원이 분명한 영화는 더욱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다. 이를테면, 불교의 경우 팔리어로 된 초기 경전인 아함(Āgama)이나 산스크리트어로 된 니까야(Nikāya)로 돌아가 보는 것이 심플하면서도 의미가 있듯, 시네마(토그라프) 혹은 키노-아이(Kino-eye, 베르토프의 용어)의 시대로 돌아가 보는 것이다. 쉬운 전달을 위해 불가피한 생략과 논리 비약과 단순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 미리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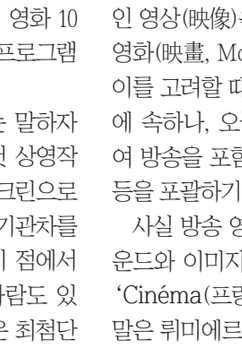
영화사는 거칠게 말하면 뤼미에르적인 다큐멘터리 전통과 멜리에스적 픽션 영화 혹은 그리피스(미국)적인 극적이고 스펙터클한 전통, 크게 두 갈래 범주의 전통을 갖게 되었다. 고래로부터 이어지는 기존 연극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이나, 사실은 그 기저의 잠재성과 에너지가 무한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올 '시네마(들)' 속에는 경이로운 인류의 보편어를 창조하려 애썼던 125년간의 시도들이 더 많이 수렴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생명력을 이어가기를 염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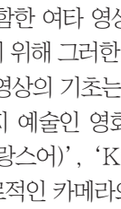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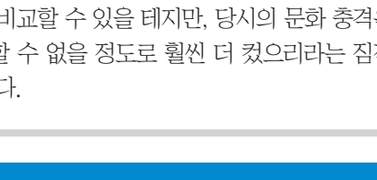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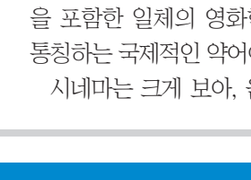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 / 의사 / 약사 / 재력가
사업가 / 공무원 / 교수 / 회사원 등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김계숙 원장

◈ 1:1 집중관리
◈ 신뢰·정확한 정보
◈ 성사위주
◈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惡人 제바달다도 수기 받아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④ 수기 주는 희망의 경전

〈법화경〉은 경문의 구성이 다른 경전과 다른 점이 있다. 모든 법문이 이중적으로 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문체의 서술이 끝나면 반드시 운문체의 응송(應頌(祇夜, geya)이 이어진다. 이는 〈화엄경〉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또 부처님 명호가 나올 때마다 여래 십호의 명호를 나란히 붙여 쓰고 있다.

〈법화경〉 각 품의 내용상 특이한 점은 우선 수기(授記)를 주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제6 수기품과 제8 오백제자수기품, 그리고 제9 수학. 무학인기품 등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수기를 주어 성불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가히 〈법화경〉은 '수기경' 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성불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섭을 비롯하여 수보리, 가전연, 목련이 수기를 받고 아난과 라후라, 교담미, 야수다라 등도 수기를 받았으며, 교진여 등 오백제자와 유학 무학 2천 명이 수기를 받았다.

본래 수기는 범어 비야카라나(vyakarana, 毘耶佉梨那)를 번역한 말인데 애초에는 교리를 분석 해설한다는 뜻이었다가 중간에는 제자가 증득한 경지 또는 사후에 태어날 곳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가 후대에 와서 성불한 뒤 얻을 명호를 예언하는 의미로 쓰였다.

제12 제바달다품에는 역사적으로 부처님 시해를 기도했던 제바달다가 과거생에는 석가모니의 스승이었다는 말을 하며 제바달다에게도 수기를 준다. 부처님이 제바달다와의 과거세의 인연을 말한다.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 동안 법화의 가르침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느니라. 여러 겁 동안 항상 국왕이 되어 원을 일으켜 위없는 보리를 구하는 데 마음이 물러남이 없었느니라. 여섯 가지 바라밀을 완성하고자 한 까닭으로 보시를 할 적에 코끼리, 말, 칠보, 도성, 처자, 하인은 말할 것 없고, 머리, 눈, 골수, 몸, 살, 손발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었지만, 법을 위해 왕위를 버려 태자에게 맡기고 북을 쳐 선언하고 사방에 법을 구하되, '누구든지 능히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해주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죽을 때까지 섬기어 시중을 들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아사타(阿私陀)라는 한 선인이 와서 말했다. '저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입니다. 만약 나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설해드리오리이다' 고 하였느니라. 왕이 선인의 이 말 듣고 뛸 듯이 기뻐하여, 곧 선인을 따라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시중을 드는데, 과일을 따고 물을 길어오고 땔나무와 음식을 만들며 심지어 몸으로 평상이 되기도 했지만 몸도 마음도 고달픔을 몰랐다. 그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천 년이 지나도록 하였으니, 법을 위하여 부지런히 시중들어 모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왕은 나요,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였느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육바라밀과 자(慈), 비(悲), 희(喜), 사(捨)와 삼십이상과 팔십종호와 붉은 금빛의 색과 열 가지 힘 네 가지 두려움 없는 것과 네 가지 포섭하는 법과 열여덟 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힘, 신통력과 도력을 갖춰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널리 제도하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었느니라. 이제 여러 사부대중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미래에 한량없는 겁을 지나 마땅히 부처가 되어 이름을 천왕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고 세계 이름은 천도라고 하리라."

그리고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이 장면은 〈법화경〉의 극적인 장면 중 하나다. 과거세의 인연을 들어 악인으로 알려진 제바달다가 〈법화경〉을 설해준 스승이었다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스스로 惡 않겠다는 '결심'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④ 삼귀의와 오계

불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 삼보(三寶)에 귀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삼귀의는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僧伽)에 귀의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삼귀의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를 위해 종교적 신념을 저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불자라면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삼귀의를 삼귀의계(三歸依戒) 또는 삼귀계(三歸戒)라고도 하지만, 삼귀의가 계로 정해진 것은 일본불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조동종(曹洞宗)의 도원(道元) 선사가 십육조계(十六條戒)의 보살계(菩薩戒)를 정했는데, 이것은 삼귀계(三歸戒)와 삼취정계(三聚淨戒)와 십중계(十重戒)를 합한 것이다. 삼귀의는 계라기보다는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종교적 맹세라고 할 수 있다.

삼귀의는 불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며, 오계(五戒)를 받아서 실천해야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극한 신심으로 삼보에 귀의해야만 비로소 오계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증지부경전(增支部經典)〉에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僧伽)에 귀의한 사람' 을 우바새(優婆塞)라고 하며, 오계를 받으면 구계(具戒)의 우바새라고 설한다. 〈중아함경(中阿含經)〉에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삼보에 귀의한 사람' 이 우바새이며, '살생(殺生), 투도(偸盜), 사음(邪婬), 망어(妄語), 음주(飮酒)를 떠난 사람' 이 구계(具戒)의 우바새라고 설한다.

오계는 다섯 가지 계, 즉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不邪婬),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이다. 표면적으로는 다섯 가지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 는 타율적인 금지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타인의 명령으로 악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악을 멈출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불살생계(不殺生戒)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이며, 이는 생물을 죽이는 것이 나쁜 것임을 깨닫고 살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투도계(不偸盜戒)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계이며, 이는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훔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세 번째의 불사음계(不邪婬戒)는 사음해서는 안 된다는 계이며, 이는 부부 이외의 부정한 성관계인 사음(邪婬)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네 번째의 불망어계(不妄語戒)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이며, 남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의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의 불음주계(不飮酒戒)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계이며, 이는 곡물로 만든 술, 과일로 만든 술, 알코올 성분이 있어 취하게 하는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오계 가운데 불음주계를 제외한 네 가지 계는 부처님 당시에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중시되었다. 〈선생경(善生經)〉에서는 부처님께서 선생장자(善生長子)에게 살생, 투도, 사음,망어를 네 가지 '결업(結業)' 이라고 설한다. 아울러 이들 악업을 떠나게 될 때 현세에서는 지혜 있는 이에게 칭찬받고, 목숨을 다한 내세에는 천상의 좋은 곳에 난다고 설한다. 또 재산을 탕진시키는 첫 번째 행위로 음주에 탐닉하는 것을 들고 있다. 〈숫타니파타〉에서는 술에 탐닉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설할 뿐만 아니라 음주를 자제하는 것을 찬탄하고 있다.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에서 불음주계를 첨가시킨 것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음주는 나태와 게으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음주에 탐닉하는 것은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나아가 술에 취하면 자제심을 잃어 악행을 저지르기 쉽게 되며, 과음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다시 말해 음주는 복을 깎아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④ 나체 수행자

한 조각 옷마저 거부한 고행

기원전후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나 기독교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등은 당시 인도의 고행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들이 '사문' 이라고 불렀던 종교수행자들의 모습은 나체의 모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무껍질로 옷을 하거나 풀과 열매 또는 나무뿌리로 연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도 사문은 영적인 순수함에 다가가기 위해 옷과 음식을 멀리하는 수행자였다. 이들이 직접 관찰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그리스에는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들의 기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 행정관으로 파견되었던 메가스테네스는 동인도의 파탈리푸트라까지 여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그리스인들의 여행기를 통해 서양에도 기원전 3~4세기경의 인도 고행자들의 모습이 알려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미 알렉산더 대왕이 간다라 지역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러한 나체 고행자가 적지 않게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칼라노스(Kalanos)라는 나체 고행자는 알렉산더 일행을 따라 탁실라에서 페르시아로 건너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거기서 병이 걸리자 스스로 불을 피워 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과연 당시 그리스인들이 만났던 인도 나체 고행자들은 어떤 종교의 고행자였을까. 브라만 고행자들이었을까, 아니면 불교의 고행자들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의 수행자였을까.

기원전 3~4세기경 그리스인들이 목격했던 것처럼 석가모니 당시에도 다양한 형태의 고행자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출가수행자 그룹을 통칭하여 우리는 사문(沙門)이라고 부른다. 당시의 불교 수행자들도 이 사문의 무리 가운데 하나였으며, 자이나(Jaina)교도 마찬가지다. 이 출가수행자 그룹 가운데에는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고행하며 떠돌아다니던 나체 수행자들도 있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이나교와 아지비카(Ajīvaka)교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불교는 이러한 나체 수행을 허용한 적이 없다. 아마도 그리스인들이 만났던 탁실라의 나체 수행자들은 불교 수행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지역으로 볼 때 아직 불교나 자이나교는 알렉산더 당시의 탁실라 지역에 흥성했을 가능성이 적다. 오히려 그 나체 고행자는 브라만 고행자일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일반적으로 브라만교에서는 방랑 수행자나 출가 고행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오해다. 물론 브라만들은 고대 힌두사회 속에서 제사를 지내주던 사제의 역할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사제로서의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때때로 다른 사문들처럼 세상을 등지고 고행자의 길을 걸었던 전통이 존재한다. 바라문들이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고 홀로 은둔의 생활을 택하여 제사를 위한 불을 피우지 않고 산다는 말이다. 따라서 브라만교를 불교나 자이나교와 같은 사문의 종교와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일 뿐이다.

브라만교는 출가하여 고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의례적 절차까지 마련해 두었으며, 고행의 단계에 따라 고행자의 경지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흥미롭게도 그 출가의식의 마지막 단계는 옷을 벗고 나체의 몸이 되는 절차가 있다. 출가의식을 집행하는 브라만은 출가인에게 옷을 벗어 나체로 북쪽으로 걸어나아가도록 한 다음, 다시 불러 고행자의 복장을 갖춰준다. 즉 탁발을 위한 발우와 지팡이, 그리고 물병 등이 그것이다. 고행자의 행색은 그가 수행과 고행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달라진다. 최고의 고행자 단계를 빠라마항사(가장 높이 나는 거위)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 길렀던 상투머리를 잘라내고 평생 어깨와 가슴에 드리웠던 바라문의 상징인 성사(聖絲)도 잘라낸다. 고행을 시작하며 주어졌던 발우도 던져버리며 손으로 음식을 받아먹거나 동물처럼 땅에 떨어진 것을 먹는다. 그리고 지팡이와 물병도 버리고 몸에 걸쳤던 한 조각의 옷가지마저 벗어던진다.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완전한 나체로 숲을 떠돌며 고행을 이어나간다. 고행자라는 세상의 어떤 표식도 갖지 않은 채 동물과 같은 삶을 이어나간다. 불전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필시 석가모니는 당시의 이러한 나체 고행자들과 수시로 조우하며 함께 법을 논했을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출강 및 통신 2021학년도 30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0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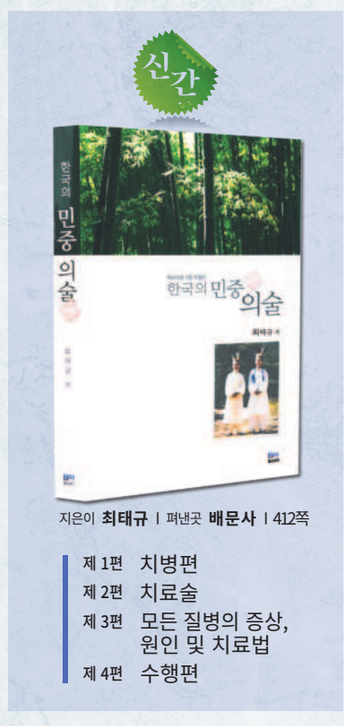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1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26호 | 17 | 전면광고

백천만겁 만나기 어려운 위없이 높고,
깊고, 미묘한 법을 이제야 만났으니
원컨대 여래의 진실한 뜻을 알아지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천수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60세이상 가족같이 지내실분
봉은사에서는 스님분들 염불, 음치교정, 전통가요, 민요, 관음시식, 체계적으로 강의
문의 010-5883-2255
010-5223-3705

★검 색★
G 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사찰화재 보험
• 목조건축물 OK!! •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 • •
공양주 모십니다.
도심속 사찰
관음사
• • •
010-5736-1835

돈이 들어오는 건강·행운 비법공개
◈ 치우천왕 빨간속옷 ◈
선물 건강·성공·행운 "특수비법 책"
다음카페 :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2-0796-0696-03 남여:3만원
문의 : 010-4500-8234 (정담)

희망소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깜짝 놀랄
특수한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사람이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삼불원융 수행법!!
『대방광불화엄경의 진실한 뜻을 밝힌다』의
핵심수행법 문의 : 010-3514-7084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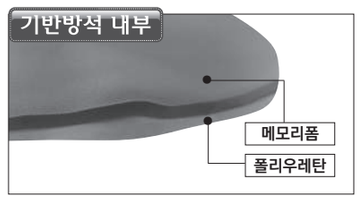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26호 | 18 | 전면광고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도 불법이라는 바다에서는 평등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일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 최고의 명당, 백두대간 끝자락, 호수전망 최고, 버스 앞마당까지 진입
- 대지1500평, 개발예정지4000평, 개발된것1500평, 건물 36평 2동, 8평 1동 콘테이너 8평

010-4752-0459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
- 대지 200평, 자연녹지 약 930평, 건평 120평 3층, 부속건물 약 20평
- 용왕당, 산신각, 넓은주차장
- 경전철 역세권
- 가액 : 22억중 대출 9억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 땅값만 받습니다
- 총 530평, 현재 성업 중
- 법당, 요사채, 공양간, 휴게실, 삼층석탑, 석등 등, 부산 울산간 지하철 역과 5분거리
- 가액 : 6억 2천만원, 스님 직접

010-2702-0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 1층 : 93.3725㎡(방음시공)
- 법당, 방1, 공양실
-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 권리금 28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783-2번지
- 대지110평, 전354평
- 가격 절충
- 심명암 심오 합장

010-3340-6537

사찰안내 (부동산 절대사절)

- 위치 : 김해, 건물 : 60여평
- 가액 : 37억
- 토지 : 임야(98,100평), (2차선 물고 산속 1km까지 폭 3~4m 포장도로)
- 용도 : 현재사찰, 청소년수련장, 주간 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산림욕장, 버섯 약초재배, 수목장등
- 위치 : 경주, 대지 250여평
- 가액 : 3억 1천
- 건물 : 법당 30여평 1동, 요사채 2동 (2층및 1층), 종무소 1동
- 편의 : 버스정거장 도보 3분, 동대병원 차로 10분, 2차선에서 200m, 민가 4채 끝자락의 산 밑, 정남향, 마르지않는 1급 청정수, 수도 有

특기 : 김해 물건 매입시, 경주 물건은 기부함(단, 법인체에 한함)

010-5460-650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토 지 안 내

-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함
-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 가액 5억5천만원
-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멋진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 (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 전주시 전경 한눈에, 이성계 기도처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년세 10만원) ● 법당(요사채 최신형), 극락전(목조신축) ● 가액 : 5억5천만(대출 2억5천만, 추가대출 가능) ● 조건 : 양도시 모든석불, 석탑 포함 (석불 1억5천 조성) ● 납골당 설치됨, 시내중심, 대나무 울창, 편백나무 3천그루 ● 1억5천만원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 잔금 1억5천만원 5년간 분할납부 ● 용왕전 약수터 2억 토목공사중

010-9647-0723

포 교 원 할 분

- 서울 강서 화곡동 소재
- 2층건물에 2층, 20평 남향
- 코너건물, 보증금 2백, 월 40, 시장옆
- 공양주, 부전 일할분, 쓸분
- 대출안내, 매매상담(상신사)

010-5381-141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시설금 2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세종시 상가안내

◈ 사찰·토지·임야와 교환도 가능 ◈
정부청사앞 인기 급상승자리
7층(E/V有) 분양138.6㎡
가액 6억(절충가)
융자1억8500, 실가액4억
현재 레스토랑 운영중
(보2천-월138임대중 23년만기)
업종변경가능·임대업최적·투자가치최상급
시세대비저렴함·주인 직거래

010-6892-3999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림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불자의 공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장(지사명)	연락처
손문철 (대구지사)	T 053-768-8008 H 010-2813-8008
이도경 (부산지사)	T 051-405-9402 H 010-5640-888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T 062-512-5003 H 010-2629-1508
조동제 (전북지사)	T 063-910-8977 H 010-8642-7733
성낙두 (경남지사)	T 051-512-1761 H 010-3860-7008
박영애 (영주지국)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시간이 '삶'

피곤하면 쉬세요. 하지만 시간을 허비하지는 마세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삶을 허비하는 겁니다. 시간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것입니다. 깨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충만함, 즉 행복입니다.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② 대홍포 (大紅袍)

빨간 망토를 두른 차

연초에는 합격이나 승진 등 뭔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이번 호에서는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 하도록 도와준 차, 중요한 협상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던 차, 빨간 망토를 두른 차, '대홍포(大紅袍)'를 소개하겠습니다.

19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다. 오랜 냉전시대를 끝내고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는 자리였다. 전 세계의 이목은 닉슨과 마오쩌둥의 회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마오쩌뚱은 이 역사적인 수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닉슨에게 차(茶)를 선물했는데, 달랑 4량이었다. 4량은 중국적 단위로 200g, 차통 2개의 아주 적은 양이다. 선물을 받아든 닉슨의 얼굴에 당혹함이 스쳐지나갔다. 사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죽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던 중국을 최초로 방문한다는 사실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수교 직전까지 서로는 최대 적이었다. 국가적 외교협상을 위해서는 지피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맥락이 필요한데, 서로는 서로를 몰랐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 닉슨은 차 두 통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 자리에 동석한 총리 저우언라이가 분위기를 눈치 채고 바로 말을 건넸다.

"이 차는 '대홍포'라는 차인데 황금보다 귀한 차요, 중국 전역에서 무이산에만 딱 6그루의 차나무가 있습니다. 올해 6그루에서 나온 차가 전부 합해 8량(400g)인데 그 중 반을 대통령께 선물로 드렸으니 빤삐쟝산(半壁江山)을 드린 것입니다."

빤삐쟝산은 영토의 반이라는 뜻이다. 대홍포 차 두 통을 선물한 뜻은 중국 영토의 반을 선물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마오쩌뚱이 닉슨에게한 선물
차나무 무이산 6그루가 전부
황실 보호, 일반인 접근불가

화통한 저우언라이의 해석에 닉슨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미 · 중수교의 협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협상테이블에서 차(茶)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과장법이 심한 나라다.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이백(李白, 701~762)이 자신의 흰 머리를 거울에 비춰보고 '백발이 3천 장이나 자라났네, 어디서 가을 서리를 이리 맞았을까' 라고 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3천 장(丈)은 9천 미터, 백발이 9천 미터나 자랐다니, 근심의 크기가 9천 미터라고 문학적으로 이해한다 해도 과한 표현이다. 이백의 백발삼천장과 저우언라이의 빤삐쟝산은 과장법의 심함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차 200g이 빤삐쟝산이라니, 대홍포 차가 어떤 차이길래 국토의 반에 해당한다는 것일까.



무이산 바위틈에서 자라는 대홍포 차나무.

대홍포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빨간 망토를 두른 차' 라는 뜻이다. 대홍포에는 전설이 있다. 명나라 때다. 어떤 선비가 과거시험을 보러 가다가 무이산을 지나게 되었다. 여러 날을 걸어서인지 복통이 심해져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따뜻하게 우린 차를 내어주었다. 그런데 차를 마시자 스르르 뒤엉킨 내장이 편안해 지는 것이 아닌가. 기운을 차린 선비는 그 길로 다시 과거시험을 보러 갔다. 선비는 과거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다. 선비는 생각할수록 자기를 살려준 스님과 차가 고마웠다. 그리고 어떤 차이기에 그리 신비한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다. 선비는 그때 그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 장원급제 행렬을 무이산으로 돌렸다. 우선은 스님에게 절을 하고, 장원급제를 하도록 도와준 차나무에게 자신이 두르고 온 빨간 망토를 둘러주었다. 빨간 망토는 장원급제의 상징이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차나무를 '대홍포' 라고 불렀다.

어느 날 황후가 병이 났다. 백약이 무효했다. 그 소식을 들은 선비가 황제에게 대홍포 차를 헌상했다. 차를 마시자 신기하게도 황후의 병이 나았다. 이때부터 명나라 황실에서는 무이산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차나무를 가꾸고 보살피도록 했다. 황실의 붉은 휘방을 두르고 보호를 받으며 황제가 마시는 공차가 되었다.

"명차는 명산에서 난다"고 했다. 산의 토질과 햇빛, 운무와 배수, 바람과 산기운 등 차나무를 둘러싼 환경이 찻잎에 고스란히 스미고 또 배어나기 때문이다. 와인에서는 이걸 떼루아라고 하는데, 와인에서 떼루아가 중요하듯이 차도 떼루아가 매우 중요하다. 대홍포의 산지 무이산은 세계자연유산이다. 평균 해발 1000미터의 산봉우리들 아래로 굽이굽이 구곡계가 흘러 풍경이 온화하고 수려하다. 구름의 고향이다. 햇볕이 충분하고 산이 깊고 운무가 발달하여 차나무 생장의 최적이다. 희귀식물과 희귀약초의 보고이다.

대홍포 모차수(원조차나무)는 무이산 바위 사이에서 6그루가 자란다. 여기에서 나는 대홍포는 일반인은 접할 수 없다. 반삐쟝산에 해당하는 고가여서 1980~90년대 만들어진 차들은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 2006년부터는 보호차원에서 채엽이 금지되었다. 현재는 6그루 모차수를 무성생식으로 번식하여 대홍포 차를 생산한다. 진품은 여전히 고가이며 시장에는 가품이 많이 유통된다.

대홍포는 10차례의 정교한 제다과정을 거쳐 만들며, 대홍포 제다법은 중국무형문화재이다.

대홍포 한 잔을 우린다. 찻물의 빛깔을 탕색이라고 하는데, 대홍포의 탕색은 오렌지빛이 감도는 홍색이다. 탕색은 홍색이지만 홍차는 아니다. 발효도가 높은 우롱차이다. 무이산의 바위 기운을 묵직하게 바탕에 깔고 우롱차의 꽃향, 밀향, 과일향이 차례로 품어져 나온다. 어떨 때는 아주 살짝 고소한 버터향이 스치기도 한다. 대홍포를 음미하다 보면 차향은 코로만 맡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차향을 온몸으로 맡는다. 특히 피부로 스민다. 찻잔을 들어 햇빛에도 비추어보고 찻잔 밑바닥까지 투명하고 영롱한 오렌지홍색을 감상하며 차 한 모금을 입에 담으면, 아까워서 삼킬 수가 없다. 한동안 머금고서야 사르르 삼켜본다. 한 잔의 차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기쁨을 누린다.

〈잇다it茶 대표〉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2020 탄허 대종사 역저서



신화엄경 합론
(新華嚴經 合論)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전체금장 12,424쪽.
합본23권
값1,610,000원

이 책은 불교의 진수(眞髓)이며 고래 화엄종의 소의경전이다. 법화(法華)·열반(涅槃)과 함께 삼대경으로 손꼽히는 일승요의경으로써 요의경(了義經)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백천중류에는 바다가 가장 으뜸이고, 삼라만상에는 허공이 가장 으뜸이며, 일체 성현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으뜸이고 일체 경교(經敎)에서는 화엄경이 가장 으뜸이다.
범부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과정의 삼현십지와 불법의 신(信)·해(解)·행(行)·증(證)과 사법계·십법계·육상원융·십현문 등 가장 심오하고 광대무변한 법문이 이 경(經)·논(論)·소(疏)에 잘 설명되어 있다.
본 경은 80권 화엄경과 통현론 40권·청량국사 화엄소초 150권·회석 7권·현담 8권·보조국사의 원돈성불론 1권·계환선사의 화엄요해 1권과 탄허선사의 주석 등 총287여 권의 집대성이다.
이와 같이 화엄학을 집대성하여 수록하고 번역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금자탑이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귀중한 법보(法寶)중의 법보로써 크게 추앙받으리라.
우주와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화엄경(華嚴經)뿐이다.



전 5권 전체금장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40품)

4×6배판 2도인쇄
가로쓰기
전5권 한질 값400,000원

대방광 불화엄경(40품)을 덧말(음)을 달아 남(男)·녀(女)·노(老)·소(少)·유(有)·무식(無識) 누구나 수 읽어볼 있 한번쯤게 단락을 달았습니다.약3,200쪽 분량으로 640쪽 1권 총5권 한셋트로 2도인쇄 전체 금장으로 영원히 유산이 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어려운 한문 때문에 경을 못 보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대방광 불화엄경 40품 594,741여자(餘字)를 원문과 동시 덧말(음)을 붙여 한글만 알면 누구나 한번쯤 독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화엄경은 가정에서
법보로 가보로 꼭 필요합니다.
본경전을 受持하면
돈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譯經많은 他의 追從을 不許.



도덕경 (道德經)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고급양장 전2권 1.152쪽.
도덕경 고급양장 2권
140.000원



莊子南華經
(장자남화경)
4×6배판 고급양장 512쪽
탄허스님 육성 씨디포함
고급양장 1권 60.000원



주역선해 (周易禪解)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1.784쪽.
주역선해 3권
210.000원

도서출판 교림
http: www.tanheo.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4길17(경운동)
건국빌딩 건국관 202호

☎ (02)733~3334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분노는 나의 스승이다 ❷ 마음기술

▶ 한줄 요약
명상으로 마음의 곳간을 채우면 평화를 얻는다.

나 스스로의 의사가 되라



분노관리는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의 구성단계에서의 관리, 즉 분노가 형성되는 단계에서의 관리입니다. 둘째는 이미 형성된 분노의 관리입니다. 셋째는 아직 분노가 형성되기 전 단계의 관리입니다. 셋째는 아직 분노가 형성되기 전 단계의 관리로 분노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제일 좋은 것은 예방입니다. 질병의 경우도 이미 발생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발생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동양에서는 예부터 하의(下醫), 중의(中醫), 상의(上醫)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의는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 의사를 말합니다. 이제 막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의술은 중의입니다. 상의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병을 치료하는 의술, 의사로 최고의 의술, 최고의 의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 병원에 있는 의사만이 아니라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역시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많이 앓는 질병이 마음관리, 행동습관 등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돕는 사람이야 말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마음지식과 마음기술을 배우고 적용한다면 스스로가 자신을 위한 상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에 분노 관리를 위해 소개하는 MPPT의 마음기술은 단지 분노만이 아니라 우울, 불안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각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예방의 효과가 있으며, 부정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기술의 개요

MPPT에서는 마음을 다루는 마음기술을 크게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세가지로 나눕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는 각각 마음을 '쉰다' '본다' '쓴다'의 마음기술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챙김은 마음 전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이고, 명상과 긍정심리는 각각 욕구와 생각을 쉬는 능력이고, 쓰는 능력이지요. 이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 스트레스는 밖조건 자체보다도 안조건인 욕구와 생각이 개입해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욕구가 없었다면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또 주어진 밖조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 욕구의 상태가 좌절인지 충족인지, 혹은 좌절예상인지 충족예상인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분노를 경험할 때 어떤 욕구, 생각 등이 개입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욕구, 생각을 다룰 수 있고 결과적으로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욕구와 생각을 쉴 줄 아는 능력이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분노와 관련된 욕구와 생각을 다른 건강한 욕구와 생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마음기술을 자세히 알아보고 분노의 관리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마음쉬기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난다' 혹은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지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을 안 순간 옆에 있던 사람이 발을 밟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화를 낼까요? 아닐겁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요. 별일 아닙니다.

상대에게 기분좋게 웃으며 괜찮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 출근길 전철에서 발을 밟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점잖은 체면에 큰 소리로 욕을 하지는 않겠지만, 매서운 눈으로 한번 쯤 째려보게 되겠지요.

평소 마음의 곳간을 채워주는 데 명상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런 도구도 필요하지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쉰다'는 마음으로 주변의 감각에 마음을 열면 됩니다. 앞에서 마음지식을 설명할 때 다룬 '정보처리 용량제한성' 때문에 우리 의식 공간인 마음 무대에는 여러정보 단위가 올라올 수 없습니다. 가만히 경험할 수 있는 감각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감각을 받아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감각을 음미하듯 가만히 느껴봅니다. 자신의 마음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감각들로 채워줍니다. 자연스럽게 욕구와 생각이 물러나고 감각들이 의식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치유법 중요
마음의 풍요가 건강 비결
마음 질병 먼저 보살펴야
명상통해 고요함 만들고
생활 속 마음씀으로 전개

참고로 욕구나 생각은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부터 하얀 북극곰을 단 30초만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아마 대부분 사람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감각에 주의를 보내면 감각으로 의식 공간을 채울 수 있고 욕구와 생각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각에 주의를 보내는 방법을 오감명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행위 명상이라고 합니다. 면도, 세수, 요리, 먹기, 마시기, 이닦기, 설거지, 청소 등 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행위를 할 때 가만히 음미하듯 느낄 수 있는 감각에 주의를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기 몸의 감각에 주의를 보내는 몸 명상도 좋은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가만히 자신의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온전히 느껴 봅니다.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몸의 한부위 한부위에 마치 경청하듯이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면 몸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이 의식 공간을 채울 때 역시 욕구와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때로는 얼굴만, 혹은 손이나 발에만 주의를 보내는 부분 몸 명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명상에서 많이 이용하는 감각으로 호흡 감각을 들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은 늘 숨을 쉽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의 감각을 코끝, 혹은 가슴이나 배의 몸통 부위에서 느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 감각에 주의를 보내는 것을 호흡 명상이라고 합니다. 호흡 감각도 몸 감각의 일부이므로 몸 명상의 일부로 볼 수도 있고, 호흡은 몸이 숨 쉬는 행동이므로 행위 명상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평소 틈틈이 명상을 해서 마음의 곳간을 채우면 기분 좋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현대인에게 좋은 휴식이지요. 명상은 우리 마음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평소 우리 마음의 곳간에 평화와 행복을 채워두면 바깥에서 오는 웬만한 일에는 쉽게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화의 마음을 다스려 평상심을 찾는 데에도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점원이 불친절해서 화가 일어난다면 그때 그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들에 주의를 보내 봅니다. 카페 바닥의 모양, 색깔, 무늬, 귀에 들리는 음악 소리나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소리, 커피의 향,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감각 등 '지금-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식 공간이 감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느덧 화가 많이 내려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물론 호흡에 가만히 주의를 두며 호흡 감각으로 마음의 무대를 채워도 좋습니다.

차차 명상이 익숙해지면 뒤에 다루는 마음챙김을 함께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익히면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사회이론으로 볼 때 자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나'인 고요한 나, 즉 '영점-나'를 자각하게 됩니다. 꾸준히 마음챙김 명상을 하며 '영점-나'와 친숙해집니다. 마음사회에 '영점-나'가 기본이 되는 '나'로 자리잡으면 외부적인 것에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마음챙김은 팔리어 '사띠'의 번역어로 불교에 기반을 둔 수행법입니다. 최근 마음챙김 수행은 종교를 떠나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는 수행법이 됐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심반조, 섭심반조 등의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밖을 보는 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군복을 입은 젊은 사람이 배가 불룩 나온 것을 보고 '군인이 배가 많이 나왔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밖을 보지요. TV를 보면서 '여자 탤런트 얼굴이 바뀐 것 같은데? 성형한 것 같아. 어디서 성형했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를 봤다면 마음챙김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밖을 봅니다. '저 탤런트 나이가 많은데 얼굴이 탱탱하네. 보톡스 맞았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챙김은 간단합니다. 나를,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나의 객관화입니다.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화'에서 상대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마음의 '화'를 보는 겁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화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이 것을 이해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를 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다면 화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러는 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볼 수 있으면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유의 공간이지요. 화를 내거나 내지 않는, 혹은 화를 내더라도 언제 어떻게 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얻게되는 겁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화를 알아차림으로써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화 자체와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공동저자 : 김정호(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
서광 스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불광출판사 펴냄〉





대행 스님

이 촛불 하나 켜는데 나와 부모 조상의 마음이 다 함께 밝아집니다

매해마다 촛불재를 하는 이유

질문 부모님 따라 선원에서 행하는 촛불재에 몇 년째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정초에 그렇게 촛불재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나름대로 의미는 알 것 같지만 올해에는 좀 더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촛불재에 임하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가 왜 촛불재를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귀중하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의 촛불재를 하는 것은 방편으로서 마음과 더불어 자신, 즉 '자(自)'는 이 몸이 되고 '신(神)'은 자기 불성(佛性)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와 신이 다 둘 아니듯이 촛불재를 하는 것도 마음에 없으면 그 촛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들질 않게 되죠. 마음에 있으니깐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 가설이 돼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한 가정에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그게. 모르는 사람은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것도 모르니 한 가정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전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알고 넓고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밝혀지면 그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도 밝혀진다는 얘깁니다. 자식을 둔 사람들은 또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습니다, 부모라는 가설이 돼 있고. 그것이 자연의 마음의 가설입니다, 우리가 전기 가설을 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듯이, 우리가 스스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가설이 돼 있는데 형제간에는 부모와 자식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덜 가는 겁니다. 친척도 '손바닥 다르고 손등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 하나 켜는 데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이 밝아질 뿐 아니라 자기 마음도 밝아져서 양면이 다 밝아지게 할 수 있는 촛불입니다. 더군다나 조상님들도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쓰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모습 쓰고 나온 대로 대접을 받게 돼 있거든. 여러분이 생각들을 잘해 보십시오. 항상 내가 얘기하죠. 개로 태어난다면 개 대접밖에 못 받고 짐승으로 태어난다면 짐승 대접밖엔 못 받는다. 돼지로 태어난다면 돼지 대접을 받을 거고 닭으로 태어난다면 닭 대접밖에 못 받는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천하게 태어나면 천한 대접밖에 못 받는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종자는 한 종자입니다. 참외씨를 심어서 씨를 받아서 또 참외씨를 심으니까 그 참외씨 그대로 나오더라는 얘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격으로요. 그러니까 자기 씨를 심어서 싹이 난 거니까 그 종자를 또 열리게 할 수밖엔 없죠. 그러니까 이 촛불 하나가 얼마만큼 귀중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근본의 내가 탄생한 자리요, 나를 형성시킨 자리요, 또 우리 부모들을 형성시키는 그 에너지가 배출되는 장소입니다.

또 아래로는 자녀들이 말입니다, 나가서 외박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외박을 해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차만별로 그렇게 부모들의 마음을 썩이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도소에 가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고발하고 부모를 고발하고, 지금은 이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 하나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얘깁니다. 촛불 하나가 그것을 다 대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마음의 능력입니다. 한 생각에 찰나에 위성에도 가고, 우주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문지방 너머도 가고, 문지방 너머나 우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더 빠를 뿐만 아니라 빛은 가다가도 중단이 되지만 이것은 물속이든지 흙 속이든지 어디든지 높고 낮음이 없이, 가고 옴이 없이 오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 하나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아주 가긍하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믿고 하나를 들고 그렇게 위아래를 껴잡아서, 둥글게 껴잡아서 자기와 더불어 같이 한방에서 밝게 된다면 벌써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가서 그런 어지러운 일들을 저지르지 않게 돼요. 이런 얘기를 듣고 무시하면 무시한 대로 자기네들이 무시를 받게 되는 거니까 뭐 나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림 · 최주현

지혜로운 마음이란

질문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지혜가 늘어날 것 같은데 저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요.

답변 지혜가 따로 없이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가시는 데 지혜롭게 마음쓰시는 것이 지혜로우면 그것이 지혜고, 그 뭐, 별달리 따로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마음,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쓰는 마음은 지혜롭고, 그거를 정신계와 물질계를 같이 쓰지 못하고 이 물질계에서만 쓰게 되면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쓰는 사람들은 공덕이 있지만, 육안으로 그냥 쓰는 사람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 물질만 보고 기도를 하거나 그런다면 그건 상대를 보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덕이 될 수가 없죠.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한 개체로서,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것이 공체입니다. 공체데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몸뚱이 하나다.' 이렇게요. '내 몸뚱이 하나고 나뿐이다. 외롭다.' 그러지요. 그런데 외롭지 않아요. 이 몸뚱이 하나 속에도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공체죠. 그리고 또 공체로서 움죽거린다면 공용이지 어떻게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나가 움죽거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기 때문에 공용이죠. 그리고 공식이고요. 그래서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는 공심으로써 쓰는 것이 지혜고, 공심이 아닌 개별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대로 이렇게 그냥 마구 말하는 걸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몸뚱이도 공체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보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먹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로구나. 그러니 나라고 세울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봤다고 할 게 뭐 있겠나. 혼자 들었다고 할 게 뭐 있나. 내가 산다고 할 것도 없다.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이 모두 공해서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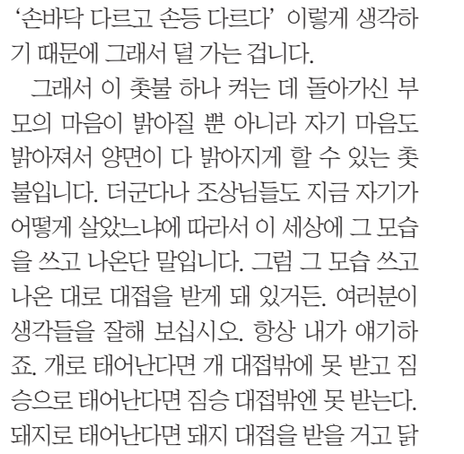
내 한생각에 이 세계를 조절할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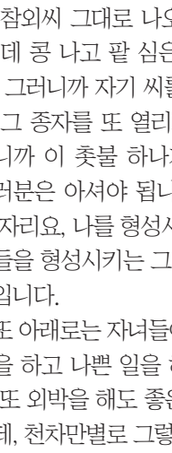
질문 요즘처럼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로 큰스님 말씀처럼 내 한생각에 이 세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답변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행으로부터, 그 작용으로부터 발전을 시키고 이 세상을 조절해 나가는 바로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 하나 잘 먹으면 이 세계를 다 조절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를 유지시키고 개발시키고 좀 더 평화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마음 하나 잘 먹지 못하면 평화가 아니라 괴로움과 여러 가지의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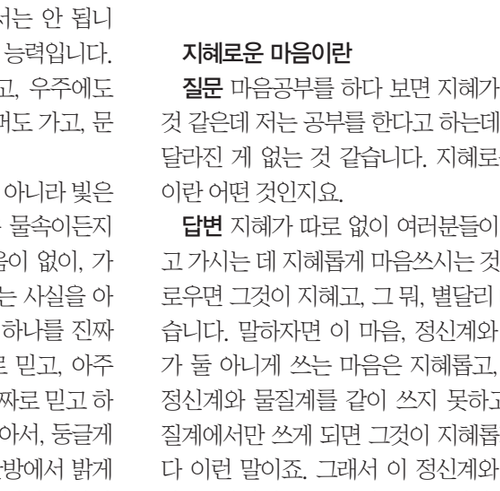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Antibacterial 항균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Fast Drying 빠른건조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살아서 영원한 자유의 밝음을 얻는다면 죽고 살고가 없어요

☞ 21면에서 계속

불미스러운 일들을 낳게 되겠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 빼놓고 저것 빼놓고 그런다면 뭐 남는 게 있어서 불법이겠습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불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체가 불교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체가 다 불교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성을 가진 '불(佛)'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교(敎)'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교 아님이 없고 만물만생이 다 불교 아닌 게 없어서 그대로 만나면 만나는 대로 같이 돌아가는 거죠. 오늘도 저 위에서 한 소나무를 만났는데, 어저께 만난 거 따로 있고 오늘 만난 거 따로 있지마는 만나는 대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듯이.

그러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일체 보면 보는 대로 둘이 아님으로써 네가 있고 내가 있지만 마음은 이심전심, 둘이 아니어서 그렇게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같이 돌아가는 걸 모른다면 내 집이 빈집이 돼서 그 에너지를 뺏긴다고도 볼 수 있지요. 여러분은 밑지고 사는 분들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비었으면 항상 에너지를 뺏기고, 뺏기기 때문에 내 몸이 쉬 망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이 가난해지고, 떳떳하지 못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집안은 화목하지가 못하고, 뿌리가 성성하지를 못하니 가지와 잎, 즉 가족이 다 성성하지 못하죠.

불법이라는 거, 이 불교라는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 일으키는 것이 법이요, 불은 바로 영원한 자기의 불성을 말하니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 근본은 능력이 있는 거고, 법은 생각을 내면 생산해 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겁니다. 생각을 해야 사람이지, 생각이 없다면 무슨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세상, 우주 전체는 모두 에너지 자체가 들고 나고 쓰고 이렇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일체 만물만생의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자기가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두 긁어모아서 자기 한마음 속에 전부 넣고, 한마음이라는 그 그릇도 없는 데다가 그냥 다 넣어 버렸으니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에너지를 다 넣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생각을 내면 법바퀴거든요, 그게. 법이란 바로 생각을 내면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별성과 같습니다. 인간도 그 몸이 헤져서 망가지면, 옷이 낡으면 벗어 버리고 다시 새 옷을 입듯이 별성도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옷 벗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벗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불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火)로 원점으로 가고, 물(水)로 원점으로 가고, 바람(風)으로 원점으로 가고, 흙(地)으로 원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없고, 다시 생산해서 그 옷이 다시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헌쇠를 넣으면 다시 생산돼서 나오듯이 말입니다. 금도 그냥 닳고 조각난 것을 갖다가 다시 녹여서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다시 탄생시키지만, 금으로 그대로 있듯이 우리 불성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성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원(圓), (손으로 큰 원을 그려 보이시고) 불바퀴로 하나로 돼 버리죠. 하나로 돼 버려서 법바퀴에 에너지가 배출이 되면서 거기서 내 마음대로 생산이 다시 되죠.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면 그 자리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의 모습, 물질적인 의식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었어도 그 물질적인 '나'가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영혼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닦지도 못한 채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줄 알고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이 몸속에 있는 그 인과응보, 악업, 선업이 쫙 깔려서 자기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 마음 자체를 "비워라, 비워라" 이러는 겁니다.

또 이 우주 전체 모든 물질이 불성입니다. 별성도 불성이요, 우리 인간도 불성입니다. 불성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블랙홀이라고 그러고 불바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데 어우러져서 굴러가는데 말입니다, 우리 마음들이 정해 놓는 데 따라서 유성이나 행성이나 조그마한 거, 조금 큰 거, 좀 더 큰 거, 아주 큰 거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쪼개지면서 분배되면서 분류되면서 분신이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지요.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큰 노릇을 못 하고 문지기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만날 떠돌면서도 심부름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요. 그냥 떠도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지. 호텔에 가면 문지기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 바깥에서 문지기 노릇을 합니다, 사람들 모두 안내하고. 이런 거와 같이 불바퀴를 보면 타 죽을까 봐 그 소용돌이 속을 못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영, 맛을 못 보는 거지요. 영원한 밝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죠. 살아서 영원한 자유의 밝음을 얻는다면 뭐, 죽고 살고가 없지요, 자유니까.

사는 게 지치고 힘들어요

질문 저는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제 스스로도 너무 한심하고, 배운 거 하나 없는 제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밤에 잠도 안 와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그런 모든 일이 닥치는 것도 댁이 공부하는 데에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작은 거나 큰 거나 엄청 많은 거나 둘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하나하나 실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다가 보면, 하나가 풀어지면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타나든, 용도에 따라서 그냥 쫙 오든, 하나가 오든 쬐그만 게 오든 그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작용하는 것은. 팥죽 속에서 팥죽이 끓어서 팥죽 방울이 온갖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다 끓었으면 불만 끄면 금방 아닙니까? 허허허…. 우리가 짐승 몸을 가졌을 때는 모두가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렇게 살던 습이 있겠지만, 인간으로 돼 가지고는 정신을 뺏기느냐 뺏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정신을요. 지금은 정신을 뺏어 먹는 시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아야 안 뺏기고, 알아야 모두 굴리죠.

엊그저께도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찻길이,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이 있습디다. 가는 길과 오는 길, 양면이 다 작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도 생각 없고 가서 죽는 것도 생각 없고, 지금 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가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서 오는 것도 생각해야 이것이 핀트가 맞아지죠. 그래서 '시발점과 종점이 둘이 아니다. 정신계와 육신이 둘이 아니다. 동쪽과 서쪽이 둘이 아니다. 넓게 본다면 여자와 남자가 둘이 아니다.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둘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나 아닌 나'와 지금 '현상의 나'가 바로 같이 작용을 할 줄 알아야, 모든 일체 만법을 굴릴 수 있고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들이고 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나'는 부(父)라고 하고 '지금 현상의 나'는 자(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와 자가 상봉을 해야 작용을 하고 이끌어 간다 이겁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녁이 아침이고 아침이 저녁이다, 저녁과 아침이, 24시간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생각이 났다 이러더라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맞붙어 버린 겁니다. 삼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삼천 년 후도 오늘이요, 삼천 년 전도 오늘입니다. 오늘도 화(化)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찰나찰나 나오는 대로 작용을 일으키고 나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실천이 없다면 학술적으로나 또는 지식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해 봐도 공덕이 안 됩니다. 과학도 지금 물질과학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니 되고 정신의학이 돼야 하고 정신과학이 돼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정신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하다못해 맷돌을 하나 돌리려고 해도 심봉을 꽂아야 맷돌을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맷돌에 넣고 가는 것도 심봉을 꽂아야만 갈립니다. 그런데 심봉도 안 꽂고선 "갈려 나와라, 갈려 나와라" 하고 바깥으로 쳐들고 빌고 온통 야단들을 하니 그게 어떻게 공덕이 돼서 갈려 나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뿐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모두가 실상의 그 실천을 그대로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또 팔수레공법으로…, 허허허…, 모두가 이렇게 잘해 나가시길 바라죠. 그러면 다 살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죽는 게 있어야 살아 나오는 게 있고, 또 죽는 게 있으면 살아 나오는 게 있고, 이게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요. 이 상대성 원리의 인연의 끈이 달려 가지고, 왜 온통 그 끈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거미줄에 얽힌 발목을 빼지 못해서 애쓰고들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거미줄이 뭡니까? 그것도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꿈을 꾸고도 그것이 석연치 않아서 온통 야단들을 하거든요. 이사를 가도 이사 잘못 가면 뭐가 잘못된다고 해서 날짜를 생각을 안 하나, 아니, 혼인을 해도 그렇질 않은가. 서로 좋으면 하는 거지 뭐, 궁합이 따로 있습니까? 만날 그렇게 요만한 거 하나서부터 큰 거까지 걱정하는 걸로 그냥 인생이 끝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걱정들을 마시고 좀 활달하고 자유스러운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내 끝 간 데 없이 이 진리는 그렇게 지금, 과거나 미래나 현실로 돌아가면서도 현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먹는 거 모두 어디 고정된 게 하나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물리가 탁 터진다면, 하나가 터지면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저 남의 거친 것만 보지 마세요. 내 가기도 지금 바쁩니다. 그러니까 거친 걸 보면 거친 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보는 게 없이 보시도록 하십시오. 듣는 게 없이 듣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내 탓이지 왜 남의 탓입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듣는 거지. 잘못된 것도 내가 있으니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시라 이겁니다.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로 뭉쳐야 우리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 가는 데 앞장서죠. 우리가 지금 속은 비고 겉만 꽉 차 가지고, 지금 정치도 모두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원인도 거기 있고, 속이 텅텅 빈 나라가 되는 것도 그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고 돌아가지 말고 칼이 있으면 칼로 탁 잘라서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내세에 그 수박씨가 다시 나와도, 수박으로 다시 나와도 여전히 그 맛은 알 겁니다. 지금 한 생에 알아 놓으면 세세생생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지금 알아 놔야 요다음의 생에서도 또 뚜껑만 열면 그냥 모두 술술 나오죠. 그래야 세계가 평등해지고 모두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이 촛불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셔야 합니다.
근본의 내가 탄생한 자리요, 나를 형성시킨 자리요
또 우리 부모들을 형성시키는
그 에너지가 배출되는 장소입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현불 논단

다시 '삼국유사'를 생각한다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역사는 미래 설계의 '지남철'
동국대 불교사 전공 드물어
불교학계, 역사소홀 반성을

일반史서 불교는 문화 치부
근대적 역사서술 한정 결과

삼국유사, 삼국사기 보완아닌
정면으로 논박한 역사 기록서
'불교적 역사 쓰기'는 되살려야

과거는 단순히 흘러가버렸기에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지남철이 되는 것이 과거, 바로 역사이기 때문이다.

우리 불교계 그리고 불교학계는 오랫동안 이 과거를 되새기고 반성하는 데 소홀하였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한국 불교학 연구를 대표하는 종립 동국대학교에 불교사를 전공하는 연구자가 드문 것은 우리 불교계와 불교학계의 빈약한 역사인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인도불교사나 중국불교사 전공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불교사에 이르면 더욱 그러하다.

역사학과에서 불교사를 전공하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사에서 불교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불교학에서 불교사를 바라보는 시각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동일한 불교사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관점이 다르면 역사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양자의 시각이 서로 비교되고 교차되지 않으면 올바른 역사인식이 힘든 까닭이다.

한국불교의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많은 왜곡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왜곡은 제대로 된 불교사 읽기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국가종교처럼 작동하던 시대의 불교는 문화사로만 기술된다. 숭유억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진 · 병자양란 이후 조선 국방의 상당부분을 책임졌던 수난시대 조선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몇 줄에 그칠 뿐이다. 역사서에서 문화의 일부로서 '종교인 불교'를 서술하는 행태는 지극히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근대인의 '종교'라는 제약된 관점으로 근대 이전 사회의 '불교' 혹은 '유교'의 역할을 재단하는 것은, 우리 역사 속 불교의 역할을 대부분 묻어버리고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비슷한 일이 고려시대에도 있었다.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미명하에 정치제도사 중심의 서술에 초점을 두었기에 신화적 역사쓰기를 배제하였으며, 종교와 신앙 그리고 민간의 삶과 역사는 도외시하였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는 그러한 〈삼국사기〉의 역사서술을 정면에서 논박한 것이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빠진 것을 보완한 역사서가 아니다. 일연 스님이 생각하는 '반드시 남겨야 할 역사'를 불교의 시각에서 서술한 역사서이다. 그랬기에 우리 민족이 전해왔던 건국신화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겨서 서술하였고, 불교가 국가종교의 역할을 했던 시대의 역사를 불교와 정치 · 경제 · 사회의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채록하였다.

〈삼국유사〉가 없는 우리의 역사, 〈삼국유사〉가 없는 상태에서 서술된 우리의 불교역사를 생각해보라. 우리 조상들의 삶과 그 삶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결정한 테두리의 대부분이 결여된 반쪽짜리 역사에 불과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면서 불교도들이 지향해야 할 세계를 그려낸다. 거기에 기대어 불교적 이상세계를 꿈꾸는 노력들이 모여 우리 역사의 많은 가닥을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는 불교사라고 부른다. 〈삼국유사〉는 그 전형을 담은 역사서이다.

오늘 지난 일을 되새기지 못한다면, 내일은 더욱 되새기기 힘들어질 것은 자명하다. 불교국가 시대의 공과(功過)도, 억불숭유 시대에 불교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스님과 불자들의 간난신고(艱難辛苦)도 뚜렷하게 되새겨두어야 한다. 〈삼국유사〉가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든 시기에 집필되어, 잊힐 뻔했던 우리 역사의 진실을 차곡차곡 쌓은 보물창고가 되었음을 잊지 말자.

〈삼국유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장의 오늘뿐만 아니라 기약해야 할 내일의 불교를 위해서도, 더 늦기 전에 우리 불교계가 역사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또 제대로 된 불교의 미래를 상상하고 기대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불교의 역사쓰기와 되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社 說

조계종 대사회역할 확대 '기대'

신축년 새해는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3년차가 되는 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018년 취임 당시 한국불교의 변화와 혁신을 기조로 밝혔다. 그리고 1년 후인 2019년 10월, 스님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으로 KTX 해고 승무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꼽았다.

이후 조계종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멈춤에도 지속적으로 대사회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원행 스님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사회 역할의 확대 기조를 밝혔다.

기후위기 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남북불교교류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는 중생을 비롯한 지구상 모든 생명과 함께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듬으며 또 한반도 평화를 이끌기 위한 사안들이다. 동시에 동체대비와 중생구제 등 불교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는 실천행이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관심이 반갑다. 기후위기는 생명의 종교인 불교가 결코 외면해선 안 될 문제이며, 불교적 사상과 가치를 통해 우리시대의 인식전환을 이끌 수 있는 핵심의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불교환경의제 21 선포 15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 대폭 확대된 조계종의 대사회행보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시대와 함께하지 않는 종교, 중생을 외면하는 종교의 미래는 어둡다.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으로 내려가 그 아픔과 함께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조계종의 발걸음이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고, 다시 한국불교 변화로 이어지길 발원해 본다.

'교불련' 화합으로 내홍 해결을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는 불교를 대표는 지성인 교수들의 모임이다. 1988년 창립한 이래 30여 년을 불자 교수들의 신행 증진과 불교진흥을 위해 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교수불자대회는 시대적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 · 대안을 모색하는 주제를 다루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교수들이 혜안을 불교계 안팎에 제시했다.

그랬던 교불련이 차기 회장 선출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등기이사들을 "불법 사이버총회"로 주장하며 김성규 회장과 송일호 차기 회장을 회원에서 제명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김한란 성신여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도 출범했다고 한다.

김성규 회장 측은 "적법 절차를 거친 총회"임을 강조하며 불교미래포럼과 인수인계 등 예정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선다. 등기이사들은 김 회장 측이 불법적인 사이버총회를 열었고, 무자격 비회원들이 참여해 차기 회장을 선출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 회장 집행부의 재무회계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김 회장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 결과라고 반박한다. 재무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여기에 김 회장 측은 제7차 불교미래포럼을 예정대로 진행했으며, 차기 회장에 업무 인수인계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현재 교불련의 내홍은 강대강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다. 부처님은 항상 대중간의 화합을 강조하셨다. '파사현정'을 위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화합'이 있어야 한다. 교불련의 내홍이 화합 정신의 기치 아래 하루 속히 정리되길 바란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마음이 통한다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마주 하고 있을 때 서로 공명하는 경우와 공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마음의 리듬에 의해서 마음속의 음악을 연주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과학자가 '다이샤닝'이라는 액체를 발명하였습니다. 다이샤닝을 유리에 칠하고 그것을 유리를 통해서 인간을 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유리를 통해서 보면 인간의 육체가 아닌 유체(流體)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 육체에서 발하는 광선은 보이지 않지만 광선이 유리의 액체에 충돌해서 일종의 형광 같은 것을 퍼뜨려 그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계를 통해서 인간의 유체가 보이고 그 유체의 색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채를 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유체는 갈색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연애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흥분하면 빨간색으로, 겁에 질리면 하얀색으로, 놀라면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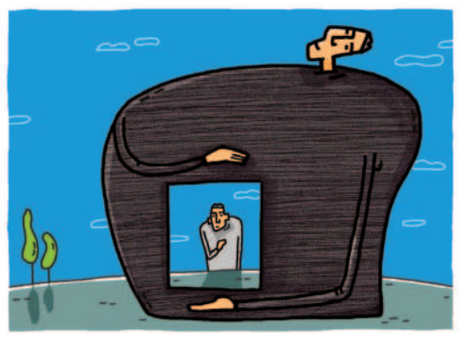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체의 색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발산하는 분위기, 즉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림자와 그림자가 사이좋게 서로 융합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사이라면 육체와 육체는 사이좋게 이야기 하고 있어도 그 유체의 그림자는 서로 반발하여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감추고 있어도 분위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꽃향기를 감출 수 없는 것과 같지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타인에 대한 혐오, 증오,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첫눈에 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말없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첫눈에 반할 수도,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는 없습니다.

유체의 색깔이 나와 같은 색깔로 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앞세우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촉구서

정부당국과 국회와 지자체는 “해인사역” 선정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새해 들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해인사와 조계종단, 합천지역주민과 많은 국민들이 간곡하게 요청해왔던 “해인사역(합천군 야로면 일대)” 설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 ‘김천 ~ 거제’ 구간의 노선 및 역사 선정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공고하고 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평가서 초안에는 합천군을 경유하는 지역에 ‘해인사역’을 배제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는 그동안 국민적 이용에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해인사가 보유하고 있는 팔만대장경과 가야산 일원의 광활한 산림과 토지, 그리고 수많은 불교성보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더 나아가 가야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서 해인사의 재산권행사와 종교활동을 제약해왔다. 해인사는 그동안 국민이용이라는 공익적 이유 때문에 수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왔다. 그런데 국가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남부내륙철도 노선에서 “해인사역”을 배제함으로서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다. 해인사가 과연 이런 국가의 이중적 행정태도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 감수해야하는가를 판단해야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해인사가 어떤 곳이며, 해인사가 소재한 가야산이 어떤 곳인가?

해인사와 가야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위시한 수많은 국보와 보물 등 각종 문화재들이 해인사 큰절과 산내암자에 즐비하게 산재하고 있다. 심지어 가야산은 산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승)”와 “가야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까닭으로 ‘해인사’에 대한 지명도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까지 쟁쟁하다. 국가세금으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의 합천지역 정거장이 반드시 “해인사역”이어야하는 까닭이다.

합천군은 서울과 경주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이다. 그 이유는 해인사와 가야산 때문이다.

해인사와 가야산은 연간 100만명이 넘는 탐방객과 불교신자들로 늘 붐빈다. 다양한 혜택기준을 적용하여 탐방객의 80%가까이가 무료입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해인사와 가야산은 교통접근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연간 100만 명 정도가 탐방해 왔지만, 만일 수도권과 연계된 철도가 개설되어 “해인사역”이 생긴다면 수도권과 충청, 경북내륙의 수많은 국민들이 해인사와 가야산을 찾을 것은 명약관화할 것이다. 그 혜택은 국민들과 합천군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해인사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서관광철도(대구, 고령, 합천 해인사역, 거창, 함양, 남원, 순창, 담양,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가 개설되면 남북과 동서를 철도로 연결하는 교차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합천의 정거장부지 초안은 개발투자업자들과 이에 동조한 지자체 인사들이 내세운 합천읍내 인근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소신 없는 국토부가 이에 영합한 것이다. 국토부가 세계적인 지명도와 이용도가 높은 해인사의 세계문화유산지역과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무시하여 “해인사역”을 선정하지 않고 지역개발업자의 이해만을 반영한 내용으로 결정한다면 수요저조로 공동화 되어버린 경전선의 “함안역”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해인사역” 부지는 합천군은 물론이고 인접 지자체인 거창군과 고령군까지 두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해인사역” 부지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해인사IC 인근지대로서 고령IC에서 5분 거리, 거창IC에서는 15분 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천읍과의 거리도 도로망 설치의 후속조치를 한다면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책사업으로서 국민전체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노선의 정거장은 인접지자체의 교통연계와 이용편익까지 고려하는 광역적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반해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정거장의 초안 내용은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국소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협한 안일뿐이다. 합천지역의 정거장은 지역주민들이 외지로 출입하는 편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수도권 등 외지방문객 유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인지도, 교통연계성, 경제성, 발전성을 두루 갖춘 “해인사역”이야말로 남부내륙철도의 합천지역 통과구간의 가장 합리적 정거장인 것이다.

남부내륙철도의 노선에는 두 가지 강력한 방문을 유발하는 벨트가 있다.

첫째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이라는 ‘세계문화유산과 가야산국립공원벨트’요, 두 번째는 남해안 한려해상공원의 통영, 거제의 ‘해양관광벨트’이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대구 ~ 부산 구간을 직행하지 않고 경주역을 거쳐 돌아가게 한 것은 불국사와 석굴암 등 경주의 문화유산을 고려한 것이다. “해인사역”은 남부내륙철도의 ‘김천 ~ 거제 노선’의 직선코스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예산증가요인도 없는데 이 지역을 그냥 지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토부가 만일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을 초안 그대로 기만적으로 강행한다면 그 책임을 온전히 국토부가 져야 할 것이다. 해인사 또한 국민적 이용 때문에 해인사의 많은 유물과 산림, 토지를 국가문화재,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으로 무상 제공하면서 각종규제를 당하는 현실을 거부하고 각종지정에 대한 해제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해인사역 설치를 강력 지지하는 합천의 지역주민, 거창군, 고령군,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를 묶어 **정부당국과 국회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다 음 -

1. **청와대 소관수석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노선과 정거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2. **국토부와 기재부는 용역회사의 연구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해인사역” 선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3. **환경부와 문화재청도 세계문화유산과 가야산국립공원에 대한 원활한 국민적 이용을 위해 “해인사역” 유치에 적극 나서라!**
4. **경남도와 합천군도 소극적 행정, 국소적 정책을 벗어나 국민전체의 향유를 위해 “해인사역” 선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불기2565(2021)년 1월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합천) 설치를 촉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중앙종회의장 정문　　호계원장 무상

교 육 원 장 진우　　포교원장 지홍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조계사 주지 지현, 용주사 주지 성법, 신흥사 주지 지혜, 월정사 주지 정념, 법주사 주지 정도, 마곡사 주지 원경, 수덕사 주지 정묵, 직지사 주지 법보, 동화사 주지 능종, 은해사 주지 돈관, 불국사 주지 종우, 쌍계사 주지 덕운, 범어사 주지 경선, 통도사 주지 현문, 고운사 주지 등운, 금산사 주지 일원, 백양사 주지 무공, 화엄사 주지 덕문, 송광사 주지 자공, 대흥사 주지 법상, 관음사 주지 허운, 선운사 주지 경우, 봉선사 주지 초격,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봉은사 주지 원명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주지 현응

해인사교구종회 (사암연합회 : 합천군, 산청군,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거창군, 함양군, 함안군, 의령군,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해인사역주민추진위원회